

9-1-2016

# 제자도의 관점에서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의 상호보완방안 : LA사랑의교회와 은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태근 이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 Recommended Citation

이태근, "제자도의 관점에서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의 상호보완방안 : LA사랑의교회와 은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6.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THE MUTUAL SUPPLEMENTATION OF DISCIPLE  
TRAINING AND MISSION MINISTRY FROM A  
DISCIPLESHIP PERSPECTIVE: WITH SPECIAL  
REFERENCE TO LOS ANGELES SARANG COMMUNITY  
CHURCH AND GRACE KOREAN CHURCH**

written by

DAVID TAEKUEN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Il Young Kim

---

David Jangsoon Pak

---

Euiwan Cho

September 1, 2016

**THE MUTUAL SUPPLEMENTATION OF DISCIPLE  
TRAINING AND MISSION MINISTRY FROM A  
DISCIPLESHIP PERSPECTIVE:  
WITH SPECIAL REFERENCE TO LOS ANGELES  
SARANG COMMUNITY CHURCH AND GRACE  
KORE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DAVID TAEKUEN LEE

SEPTEMBER 2016

제자도의 관점에서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의 상호보완  
방안: LA사랑의교회와 은혜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일 영 교수

이 태 근

2016년 9월

## Abstract

**The Mutual Supplementation of Disciple Training and Mission Ministry from a  
Discipleship Perspective: With Special Reference to Los Angeles Sarang  
Community Church and Grace Korean Church**

David TaeKuen Lee

Doctor of Ministry

2016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research proposes a biblical ministry strategy from a discipleship perspective, specifically by observing how disciple training and mission ministry can mutually supplement each other. Chapter 1 presents the research problem, purpose, and methodology. Chapter 2 surveys theological and biblical definitions of “discipleship,” “disciple training,” and “missions.” Chapter 3 examines the disciple training ministry of LA Sarang Community Church from the discipleship perspective previously defined. Chapter 4 then studies the mission ministry of Grace Korean Church, also from the discipleship perspective defined earlier. Chapter 5 theorizes on how to apply adequate mission ministry at LA Sarang and disciple training at Grace. Chapter 6,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research and proposes a way for mutual supplementation of disciple training and mission ministry from a discipleship perspective.

Theological Mentors: Il Young Kim, EdD

David Jangsoon Pak, PhD

Euiwan Cho, PhD

## 헌사

이 논문을 끝낼 수 있도록 부족한 아들의 평생 기도 후원자이며 막내아들의 응원자가 되셔서 부족한 종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신 저의 부모님, 제가 목회자로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목회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신 장인 목사님과 장모 사모님, 넘치는 사랑으로 후원과 격려를 해주신 형제들,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부족한 남편과 남편의 목회를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며 헌신해주고 있는, 평생 나의 신앙 동반자요 영원한 친구인 나의 반쪽 사랑하는 아내 Karen Lee(이명희) 사모에게 드립니다.

## 감사의 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저희 목회의 모토와도 같은 위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논문을 쓰는 기간은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가장 힘든 시기였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저에게는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더해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축복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종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 논문 주제에 대해 깊은 통찰력과 가르침을 주신 김세운 교수님과 박기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논문의 지도교수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탁월한 지도, 세밀한 비평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해 주신 김일영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논문을 위해 부심으로 수고해 주신 박장순 박사님과 본 논문의 편집과정에서 여러모로 배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황진기 박사님과 조의완 박사님과 신용길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다양한 목회를 경험하며 바른 목회관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역지를 허락하시고 멘토링을 해주신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님, LA사랑의교회 담임 김기섭 목사님 그리고 전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김승욱 목사님 (현 분당할렐루야교회 담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9월 이태근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 2 장 제자도의 관점에서 본 제자훈련과 선교 .....	6
제 1 절 제자도에 대한 이해 .....	7
1. 교회 .....	7
2. 제자 .....	10
3. 제자도 .....	12
가. 마태의 제자도 .....	14
나. 마가의 제자도 .....	16
다. 누가의 제자도 .....	18
라. 요한의 제자도 .....	20
마. 바울의 제자도 .....	23
제 2 절 제자훈련의 이론적 토대 .....	26
1. 제자훈련의 정의 .....	26
2. 제자훈련의 목적 .....	28
3. 예수님의 제자훈련 핵심 요소 .....	30
가. 선택과 동거 .....	30
나. 시범과 섬김 .....	30
다. 기도와 말씀 .....	31
라. 위임과 돌봄 .....	31
마. 전도와 재생산 .....	32
바. 사랑 .....	32
4. 바울의 제자훈련 방식 .....	33

가. 예의 바른 가르침 .....	33
나. 각 상황을 고려함 .....	34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냄 .....	34
제 3 절 선교의 이론적 토대 .....	34
1. 선교의 정의 .....	35
2. 선교의 목적 .....	36
3. 예수님의 선교 .....	37
4. 바울의 선교 .....	38
제 4 절 요약 및 결론 .....	39
제 3 장 LA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 .....	41
제 1 절 LA사랑의교회의 목회적 이해 .....	42
1. LA사랑의교회 지역적 특성과 상황 .....	42
가. 지리적 특성 .....	42
나. 문화적 상황 .....	43
2. LA사랑의교회 현황 .....	43
가. 교회 개척 배경 .....	44
나. 비전 .....	44
다. 목회 방향 .....	45
제 2 절 제자훈련 준비를 위한 양육과정 .....	46
1. 새생명반 .....	46
2. 새가족반 .....	47
3. 새일꾼반 .....	47
제 3 절 LA사랑의교회 제자훈련 .....	48
1. 제자훈련의 목적 .....	48
2. 제자훈련의 실제 .....	49
가. 제자훈련의 교육과정 .....	49
(1) 훈련생 선발하기 .....	50

(2) 오리엔테이션 .....	51
(3) 입학식과 수료식 .....	52
나. 제자훈련 모임 시간 운영 .....	53
(1) 아이스 브레이크 .....	53
(2) 찬양 .....	54
(3) 기도 .....	54
(4) 과제물 점검 .....	55
(5) 말씀훈련 .....	55
(6) 통성기도 .....	56
다. 제자훈련의 교재 .....	57
(1)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	57
(2)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	58
(3) 작은 예수가 되라 .....	60
라. 제자훈련의 연속인 사역훈련 .....	61
(1) 사역훈련의 목적 .....	61
(2) 사역훈련의 실제 .....	61
3. 제자훈련의 결과 .....	63
가. 순기능 .....	63
(1) 생활의 변화와 인격의 성숙 .....	63
(2) 바른 교회관과 사도관의 확립 .....	64
(3) 목회 동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자 증가 .....	65
(4)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 .....	65
나. 역기능 .....	66
(1) 성도들 사이에 우열이 생김 .....	66
(2) 훈련자에 따른 열매의 차이 .....	67
(3) 당장 열매를 보고 싶은 조급함 .....	68
(4) 기도 사역이 상대적으로 약해짐 .....	69
제 4 절 요약 및 결론 .....	70

제 4 장 은혜한인교회의 선교사역 .....	71
제 1 절 은혜한인교회의 목회적 이해 .....	71
1. 은혜한인교회 지역적 특성 .....	72
가. 지리적 특성 .....	72
나. 문화적 상황 .....	72
2. 은혜한인교회 현황 .....	73
가. 교회 개척 배경 및 역사 .....	73
나. 미션 .....	74
다. 목회 방향 .....	74
제 2 절 은혜한인교회의 양육 .....	75
1. 결신 과정 .....	76
2. 제자훈련 과정 .....	76
가. 제자훈련 과정의 목적 .....	76
나. 제자훈련 과정의 실제 .....	77
(1) 일대일 제자 양육(16주) .....	77
(2) 신, 구약개론(26주) .....	77
(3) GTD(Grace Tres Dias) .....	77
(4) GF(Grace Freedom) .....	77
(5) 율법과 복음(8주) .....	77
(6) 은사발견 세미나(8주) .....	78
(7) 성경적 재정교실(8주) .....	78
3. 사역훈련 과정 .....	78
가. 사역훈련 과정의 목적 .....	78
나. 사역훈련 과정의 실제 .....	79
(1) 부목자 세미나(8주) .....	79
(2) 지도자 자질론(8주) .....	79
(3) 전도폭발(14주) .....	79
(4) 일대일 지도자(10주) .....	79

(5) 중보기도 세미나(10주) .....	80
(6) 은혜선교학교(8주) .....	80
제 3 절 은혜한인교회 선교 .....	80
1. 선교 현황 .....	82
가. 구소련 권역 .....	82
나. 아시아 권역 .....	82
다. 아프리카 권역 .....	83
라. 중남미 권역 .....	83
마. 유럽 권역 .....	83
바. 북미주 권역 .....	84
2. 선교 전략 .....	84
가. 사랑의 불꽃 .....	84
나. 신학교 사역 .....	85
다. 선교지 교회 개척 사역 .....	85
라. 미전도 종족 사역 .....	86
3. 선교훈련의 실제 .....	86
가. 선교훈련의 교육과정 .....	87
(1) 세계 선교 현황과 GMI 선교 현황 및 선교 전략 .....	87
(2) 북한 사역 .....	88
(3) 구소련 선교와 청지기 선교회의 역할 .....	89
(4) 북미주 및 중남미 선교와 원주민 단기선교 .....	89
(5) 아프리카 및 중동 선교 .....	90
(6) 아시아, 유럽, 포어권 선교 및 의료선교 .....	90
(7) GMI와 GKC 선교 방향과 비전, 수료식 .....	91
나. 선교훈련의 시간 운영 .....	92
(1) 아이스 브레이크 .....	92
(2) 찬양 .....	93
(3) 기도 .....	93

(4) 강의 .....	93
(5) 중보기도 및 광고 .....	94
다. 단기선교 .....	94
(1) 단기선교의 목적 .....	95
(2) 단기선교의 출발 전 준비사항 .....	95
(3) 단기선교 현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	96
(4) 단기선교에서 돌아와서의 후속 조치 .....	96
(5) 단기선교를 통해 얻어지는 유익함 .....	97
4. 선교의 결과 .....	97
가. 순기능 .....	97
(1) 선교지와 지속적인 유대관계 .....	98
(2) 선교 및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	98
(3) 신앙생활 및 삶에 대한 동기 부여 .....	99
(4) 교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소멸 됨 .....	99
나. 역기능 .....	99
(1) 성도 사이에 우열이 생김 .....	100
(2) 보이는 사역에 치중하게 됨 .....	100
(3)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열심 .....	100
(4) 말씀 사역이 상대적으로 약해짐 .....	101
제 4 절 요약 및 결론 .....	101
제 5 장 제자훈련과 함께하는 선교사역 .....	103
제 1 절 LA사랑의교회의 선교훈련 보완 방안 .....	103
1. 전도폭발 .....	103
가. 구원에 대한 확신 .....	104
나. 친교 .....	105
다. 전도 .....	105
라. 건강한 성장 .....	106

2. 그레이스 인카운터 .....	106
가. 8주 저녁 모임 .....	106
나. 시간 운영 .....	107
다. 테이블 운영 .....	107
라. 강의 주제 .....	109
마. 운영조직 .....	110
3. 선교사역을 위한 제언 .....	111
가. 일반적 제언 .....	111
나. 실질적 제언 .....	112
(1) 전도폭발 접목 .....	112
(2) 그레이스 인카운터 접목 .....	113
제 2 절 은혜한인교회의 제자훈련 보완 방안 .....	114
1. 양육과정 재편성 .....	114
가. 결신 과정 .....	115
나. 제자훈련 과정 .....	115
다. 사역훈련 과정 .....	115
2. 제자훈련의 효능 .....	116
가.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열심 .....	116
나. 말씀 사역의 활성화 .....	116
다. 보이지 않는 사역의 활성화 .....	117
3. 제자훈련을 위한 실질적 제언 .....	117
가. 일반적 제언 .....	117
나. 실질적 제언 .....	118
제 3 절 요약 및 결론 .....	119
제 6 장 결 론 .....	120
제 1 절 연구 요약 및 한계 .....	120
제 2 절 연구 결론 및 제언 .....	123

부록 1. Grace Encounter 주말수양회 및 일정표 .....	128
부록 2. Grace Encounter 운영조직표 .....	129
참고 문헌 .....	130
Vita .....	134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현대 산업발전과 함께 20세기 후반부터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와 교회성장주의 속에서 물질적 축복과 양적인 성장을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교회의 외적 크기와 재정 상태에 따라 교회를 평가하는 안타까움을 낳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복주의와 교회성장주의는 교회의 근본적 존재 이유와 목회사역의 방향을 물질적 축복과 외적 성장으로 치우치게 하여 성경 말씀이 지향하는 영적 및 질적인 부흥을 통한 양적인 부흥의 틀을 깨고 있다.

또한, 교회 강단의 설교와 성도들에 대한 양육 방향이 기복주의와 교회성장주의로 인해 복음의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 물질적 풍요와 교회 성장에 초점을 둔 자의적이고도 편파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성경 말씀의 진리 중 한 측면인 물질적 풍요 및 양적인 성장을 마치 성경 말씀의 전부인 것처럼 설교하며 양육시킴으로써 성도들의 신앙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보다 물질적 풍요와 양적인 성장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기복주의와 교회성장주의로 말미암아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만이 성공한 목회자이고 그렇지 못한 목회자는 능력이 없는 목회자라는 비 복음적인 정서와 선입견이 교계에 만연해지고 있다.

그 결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자신이 소속된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성경 말씀이 뜻하는 진리와 상관없이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라도 취하는 동시에,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히려 성경 구절을 인위적으로 인용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보고 배운 대로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비상식적 언행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비전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야망'이 되기에, 성도는 하나님 자체를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sup>1)</sup>

참된 교회는 제도적 교회보다 더 중요한 본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이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림으로써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명칭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라는 명분이 있어도 그 사역을 하는 근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세상적인 성공이라면 이는 크게 변질한 것이다.

교회와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진정한 필요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sup>2)</sup> 옥한흠 목사는 이를 위해 "지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교회론에 근거하여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전략을 세웠다.<sup>3)</sup> 그리고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평신도가 교회와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기 위해 옥한흠 목사는 평신도를 소명자로 세우는 '제자훈련'을 목회의 방향으로 삼고 바른 제자훈련이 교회 안에 뿌리내리도록 노력을 하였다.<sup>4)</sup> 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평신도를 소명자로 세우는 제자훈련을 함으로써 만연해 있는 기복주의와 교회성장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한 사람을 향한 목회의 의미에 점점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다.

제자훈련이 평신도를 깨워 바른 신앙인으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누구도

1) 이재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서울: 홍성사, 2003), 70-79.

2) Larry Gilbert, *팀 사역 (Team Ministry)*, 채수범 역 (서울: 프리젠티, 2002), 207.

3)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78.

4)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8.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근거한 제자훈련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런 제자훈련은 단지 개 교회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제자도가 빠진 제자훈련을 받게 된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는 교만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오늘날 다양한 원인으로 교회의 윤리와 도덕규범이 점차 상실돼감에 따라 교회가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교회의 더 큰 정체성의 위기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변, 즉 잘못된 교회 목적론이 지금의 교회 정체성 위기를 가져온 근본적인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답을 찾아야 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즉 주님의 제자도에 맞는 삶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

21세기에 존재하는 교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교회의 외적 부흥보다 “현재 교회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교회의 중심에 누가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매 순간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항상 지니고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자도'를 가르치셨다. 오늘날과 같이 기복주의와 교회 성장주의가 만연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제자도의 바탕 위에 바른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이 펼쳐진다면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의 삶이 될 것이며 이 땅에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올 것이라고 본다.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인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말처럼 교회가 늘 신앙의 패러다임을 재확인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진리를 어떻게 연결하여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교회가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sup>5)</sup> 교회는 각 시대의 문화 속에 존재하기에 각 시대에 적합한 문화

5)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25.

를 통하여 올바른 훈련과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각 시대의 문화 변화와 삶의 양식 변화에 맞게 복음을 재해석하고 신앙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끊임없이 패러다임을 재구성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필자가 미국 남가주에서 9년 동안 섬겼던 LA사랑의교회와 은혜한인교회는 성도들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힘껏 열정을 쏟고 있는 교회들이다. LA사랑의교회는 국제제자훈련원에 바탕을 둔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고 있으며, 은혜한인교회는 다양한 양육프로그램과 선교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기도 안에서 진행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초점을 맞춰 사역하고 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측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두 교회가 서로에게 있는 다른 장점(제자훈련, 선교)으로 보완된다면 더 온전한 제자도를 이루는 교회로 세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즉,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이 성경적 제자도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할 때 균형 있는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어 교회의 참된 부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제자도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이 서로 상호 보완함으로써 제자도에 근거한 성경적 목회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적용보다 성경적, 신학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마이클 윌킨스(Michael J. Wilkins)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많은 이들이 이미 교회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자훈련에 관한 안내서들을 내어놓았다. 이 모든 안내서들이 과연 균형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존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옳은 이론들이 실생활에의 적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옳은 이론에 근거한 실천에의 적용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울 때에 우리가 배운 것을 실제 생활이나 교회, 또는 선교 기관이나 우리의 가정, 또 세상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야 한다.<sup>6)</sup>

그래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연구하고 그 제자도의 관점에서 제자훈련과 선교를 이론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그 후 필자가 섬겼던 LA사랑의교회와 은혜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제자도에 근거한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의 상호 보완 방안을 찾고자 한다.

논문 2장에서는 제자도와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에 대한 신학적 및 성경적 개념을 찾아봄으로써 제자훈련과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교회와 제자의 정의를 알아보고, 성경 기자들을 통해 제자도의 의미를 살펴본 후, 그 제자도에 근거한 제자훈련과 선교에 대한 이론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자훈련과 선교가 제자도의 어떠한 측면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필자가 시무했던 LA사랑의교회의 중심사역인 제자훈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LA사랑의교회가 실행해 온 제자훈련의 장단점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필자가 시무했던 은혜한인교회의 핵심사역인 선교사역을 현장 중심으로 평가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자도의 관점에서 은혜한인교회가 사역해 온 선교사역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제자도에 근거하여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LA사랑의교회에 어떻게 선교사역을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선교사역에 집중적으로 힘쓰고 있는 은혜한인교회에 어떻게 제자훈련을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6장 결론 부분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며 제자훈련이 선교사역과 함께 나아갈 방안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한계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제자도의 관점에서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이 함께 가야 할 유기적 관계이며, 교회가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을 함께 실행할 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이루어짐을 주장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6) Michael J. Wilkins, *제자도 (Following the Master)*, 이역부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5), 19.

## 제 2 장

### 제자도의 관점에서 본 제자훈련과 선교

20세기 후반부터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 가족주의(정과 연의 문화), 개교회주의, 성장논리와 우상숭배, 이분법적인 사고(교회와 사회의 분리), 이성 경시 현상, 그리고 단순논리주의 등으로 인해 ‘정체성의 위기’, 즉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당면해 있다.<sup>7)</sup> 그리고 교회가 점차 신앙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의 한 양식으로 변질하고 있다. 특히 기복주의와 교회성장주의로 인해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희석됨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마 5:13~16, 한글개역개정)<sup>8)</sup>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정화되어야 한다.”는 조롱 섞인 말을 듣게 될 정도로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이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의 핵심 사명인 복음을 증거 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는 불변하기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바르게 받기만 한다면 진정한 새로운 부흥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골 1:18~20). 따라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끈 제자도의 정신을 교회가 온전히 회복하고, 그 회복된 제자도를 바탕으로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이 행해진다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복음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릴 것이다.

제자훈련과 선교의 모든 이론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설령 제자훈련과 선교가 아무리 훌륭하고 교회 부흥에 큰 보탬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 근

7)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62-100.

8) “이하의 모든 성경 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개역개정 성경을 따른다.”

거한 제자훈련과 선교가 아니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운 교회의 존재 의미와 제자도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자도의 관점에서 제자훈련과 선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제자도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인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긴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제자도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제자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된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 1. 교회

교회를 뜻하는 용어는 구약성경 히브리어 'קהל(카할)'과 70인 역 성경 희랍어 'ἐκκλησία(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다. 카할이란 용어는 '모이다', 혹은 '소집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써 '소집된 회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sup>9)</sup> 신약시대 의미로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으신 공동체'(행 20:28; 고전 1:2; 10:32; 11:16, 22; 15:9; 고후 1:1; 갈 1:13; 살전 2:14; 살후 1:4; 딤후 3:5, 15)인 동시에,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엡 1:23~2:10; 3:8~12; 골 1:21~27; 히 12:22~24; 계 1:20)이기에 교회를 계약 공동체의 연속성과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sup>10)</sup>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뜻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골 1:18)라 칭하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골 1:24)으로 정의하

9) William L. Holladay, *구약성경의 간추린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ased upon the Lexical Work of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손석태, 이병덕 공역 (서울: 솔로몬, 1998), 419-420.

10) 한영제,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2 (서울: 기독교문사, 1984), 19-22.

였다. 그리고 구원의 전 과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나타나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sup>11)</sup> 또한, 바울은 교회인 성도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성도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에 교회를 가리켜 ‘거룩하다’고 선포한다(엡 5:27).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회중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또한, 진정한 교회란 보이는 교회에 단지 출석하는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을 뜻한다. 그래서 이종성 목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체험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삶 속에서 재확인하고, 그의 재림을 믿음으로 승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로 보았다.<sup>12)</sup> 또한, 토마스 그롬(Thomas H. Groome)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교회의 본질과 목적으로 보았다.<sup>13)</sup>

이처럼 교회는 사람이 만든 여러 기관 가운데 단순한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은 선택받은 백성의 모임을 뜻한다(출 19:5~6; 신 7:7~9; 뱀전 2:9~10).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가 분부하신 사역을 하게 된다.<sup>14)</sup> 그러므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 가시적으로 세상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다.

교회론에 따르면 건강한 교회(the healthy church)는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의 지표로 평가된다.<sup>15)</sup> 즉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순종하고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람에게 대한,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로서 철저

11) Millard J. Erickson, *교회론 (The Doctrine of Church)*,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37.

12) 이종성, *교회론 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6), 42.

13) Thomas H. Groome, *생명을 위한 교육 (Educating for Life)*, 김도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253.

14) 이종성, *교회론 I*, 36.

15) 한영제, *기독교대백과사전*, 2:28-30.

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최종 권위를 두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다. 이러한 참된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유기체적인 상호 관계를 갖는 것이다. 바울은 머 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각 지체가 유기체적으로 상호 조화를 이루어 성장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보았다(롬 12:5; 고전 12:27). 유기체는 성장 과 동시에 다른 생명체를 낳음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건강한 유기체적 교회는 교회를 재생산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손경덕 목사는 교회의 핵심 사명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보고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복음전파’를 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의 책 임이며 특권이다. 두 번째 존재 목적은 ‘친교’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며, 세 번째 존재 목적은 ‘가르침’으로서 진리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존재 목적은 ‘봉사’로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마지 막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sup>16)</sup> 이러한 다섯 가지 교회의 핵심 사명 중 먼저 올바른 예배가 드러질 때 복음전파도, 성도의 교제도, 가르침도, 봉사도 바르게 행해질 수 있게 된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웨스트민스터 소 요리 문답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 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sup>17)</sup>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롬 12:1; 벧전 2:5).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예배의 기본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찬송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본다.<sup>18)</sup> 이처럼 교회 사 명의 핵심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만남을 경험한 성도만이 하나님을 자 신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16) 손경덕, "건강한 교회를 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 연구: 충신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35.

17) 성종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서울: 솔로몬, 2001), 11.

18) Robert E. Webber, *예배학 (Worship Old and New)*,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13.

게 된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8~20).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드러지는 예배 속에는 예배자로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측면'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가르치고 세우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sup>19)</sup>

## 2. 제자

'제자'라는 용어의 라틴어 *discipulus*(남성형)/*discipula*(여성형)와 헬라이어 *μαθητής*(남성명사)/*μαθήτρια*(여성명사)에서 비롯되었다. 제자는 영어로 *disciple*, 헬리어로 *μαθητής*(마테테스)는 남성명사로 '배우다'라는 뜻의 *μανθάνω*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תלמיד*<탈미드; *למד*(라마)에서 유래>와 라틴어 *discipulus*<*discere*에서 유래>는 밀접한 대응어이다. 또한, 여성명사는 *μαθήτρια*(마테트리아)로 학습자 또는 학생, 주어진 공식적 교훈 또는 교시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을 지칭한다.<sup>20)</sup> 제자의 라틴어와 헬리어 명사들이 동사 '배우다'(learn)와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라는 용어는 '배우는 자들' 즉, '학생들'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로마나 헬라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제자'는 위대한 선생에게 헌신한 사람을 의미한다.<sup>21)</sup> 따라서 제자는 '스승의 것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인 동시에 '스승에게 배워 스승의 사명과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특별한 일대일 관계가 형성되는데, 스승은 제자를 위해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제자에게 기본 기술을 전수해야 하며, 제자가 동일한 것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sup>22)</sup> 이때 제자가 스승만큼만 된다면 탁월한 자라 말할 수 있다(마 10:24). 그리고 탁월한 제자는 마치 보석을 담기 위해 그릇을 준비하듯이 스승의 높은 실력과 기술을 연마하기 전에 먼저 스승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가야 한다.

19)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08.

20) 한영제,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13 (서울: 기독교문사, 1984), 1148.

21) Wilkins, *제자도*, 38.

22) Robert J. Clinton, *효과적인 리더 제발 이렇게 하라 (Leadership Training Models)*, 임경철 역 (서울: 하늘기획, 2009), 328.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의 전반에 걸쳐 당신의 종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사 8:16).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사무엘과 선지자의 생도들, 이사야와 그의 제자,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 등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시종으로 늘 곁에 두고 있었다. 이것은 모세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훈련시키고 있음을 뜻한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기고 나가 싸우게 했다. 이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도록 훈련한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를 때 여호수아와 동반했으며(출 24:13),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에 거하면서 모세를 도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출 33:11). 이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라,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정착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친 자들로서 모세에게 훈련을 받은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모세를 닮아가며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그 사명을 완수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참된 관계가 형성되었다.

마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및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마 25:15~20)을 가리켜 '제자'로 보았고, 마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막 3:12~18; 4:34~35)을 '제자'의 범위로 국한했다. 누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눅 10:1~20)을 가리켜 '제자'라 말하며, '인격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 그리스도인'(행 11:26)을 '제자'라고 칭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다양한 사람들'(요 6:66; 8:31)을 '제자'라 칭했으며, 바울은 '신령한 자'(갈 6:1), '온전한 사람'(엡 4:13), '장성한 자'(고전 14:20), '완전한 사람'(골 1:28)을 가리켜 '제자'라 불렀다.<sup>23)</sup>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제자'라는 단어는 총 269회 등장하는 반면 '그리스도인'은 단 3회, '신자'는 단 2회밖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답게 되

23)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30.

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눅 14:25).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의 핵심은 ‘회심’과 ‘성장’에 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이미-아직’(already-not yet) 사이에서 일어나는 긴장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진 않았다.<sup>24)</sup>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한 순종과 섬김과 단순한 삶과 고난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sup>25)</sup>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그리스도인들’과 ‘신자들’만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온전한 ‘제자들’을 만드는 데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sup>26)</sup>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자들과 이미 제자훈련을 받은 자들에게 붙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제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 사명에 근거하여 성별 및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본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헌신도 그리고 성숙도에 의해 취사선택 될 수 없다.<sup>27)</sup>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 3. 제자도

제자도의 배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제자’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단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즉, 스승과 제자 관계 정도로만 표현되었을 뿐 제자라는 개념 자체도 찾아보기 힘들다. 신약에서 제자란 단어는 선생을 모시고 지내는 학생을 뜻한다. 특히 헬라 문화권에서는 선생을 따르고 배우며 섬기는 사람을 제자라 불렀다. 유대사회에서 랍비와 제자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율법이며 랍비를 통해 제자는 율법(토라)을 배웠다.<sup>28)</sup>

24) Wilkins, *제자도*, 43.

25) David Watson, *제자도 (The 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4), 17-35.

26) Sanders J. Oswald, *영적 제자도 (Spiritual Discipleship)*, 안정임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6.

27)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37-138.

제자도에서 ‘제자’ 뒤에 붙은 ‘도’라는 말은 ‘~의 모습’ 또는 ‘~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뜻을 지닌다. 그래서 제자도는 ‘제자가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 또는 ‘제자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뜻한다.<sup>29)</sup>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과 특성 전체를 지칭하기에 성도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성도의 생활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회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제자도이며, 제자도를 통해 성도는 계속 성장한다.<sup>30)</sup> 이때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마느냐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적용될 삶의 방식이 된다. 그래서 제자도를 리더십, 복음전파, 설교, 예배, 상담, 지원그룹,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과 동일시할 경우 제자도의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sup>31)</sup>

김세윤 교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상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성화된’, 곧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벧전 1:15~16; 레 11:44). 이러한 요구를 할 때가 ‘성화’의 언어가 적용되는 두 번째 맥락인데, 그때는 원래 물리적 개념인 ‘성화’가 의례적(ritual) 의미와 함께 도덕적 의미를 함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성화의 과거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화의 현재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성도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롬 12:1).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성화가 너희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상숭배 하지 말고 음행에 빠지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라”(살전 4:3~8). 바울은 이러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롬 6:15~23; 고전 3:17~11, 19; 7:34; 고후 1:12; 살 2:12; 3:12~13; 5:23).<sup>32)</sup>

28) Watson, *제자도*, 17-18.

29) Bill Hull, *온전한 제자도 (The Complete Book of Discipleship)*, 박규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3.

30) Wilkins, *제자도*, 31.

31) Hull, *온전한 제자도*, 35.

32) 김세윤, *칭의와 성화* (서울: 두란노, 2013), 178-179.

제자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외형적 측면’과 함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른 ‘내면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며(요 15:16), 주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요 1:44~51), 순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마 16:24; 눅 6:46),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마 10:8; 막 1:17; 눅 6:38),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눅 18:28-30),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빌 1:29; 딤후 4:10~14; 행 20:31), 그리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전 1:26~29)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제자로서의 본분, 즉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순종과 섬김과 단순한 삶과 고난을 위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감 속에서 늘 살아가야 한다.<sup>33)</sup>

#### 가. 마태의 제자도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초청하시며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마 4:19). 이처럼 제자도의 시작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며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 관계 형성이 제자도의 출발점이 된다.

마태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을 몇 가지 특징과 성격을 지닌 부류로 나누어 소개한다. 그들은 예수님 외에 제자들, 군중들, 이방인들, 유대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간척자들로 나누어진다. 특히 공관복음 중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마 4:18~22, 8:21~22, 9:9, 14:28~32), 그 외에는 제자들을 하나의 무리(공동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의 특징을 '사랑의 공동체'라 언급하셨으며, 율법 전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집약하셨다(마 22:34~40).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보여주는 사랑의 대상은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도 포함된다(마 5:43~46).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삶의 실천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용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강조하셨다(마 6:14~15).

33) Watson, *제자도*, 17-36.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소외 받는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다(마 18:1~14).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종이 되어 서로를 겸손히 섬기는 것'이다(마 20:26~28, 23:11~12).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고난을 겪으며 주님을 위해 집과 가족까지 등질 각오를 해야 한다(마 8:20; 10:37, 19:27~30).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마 10:38~39; 16:24~26). 이 모든 행위는 '믿음'의 응답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음을 책망 받은 반면(마 6:30, 8:26, 14:31, 16:8), 오히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다(마 8:10, 9:2, 15:28).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공생애 기간 이루지 못한 '굳건한 믿음'은 제자도의 자격 조건이라기보다는 제자도의 목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34)</sup>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면(마 14:33, 16:16)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도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협력자 구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항변한 베드로의 모습(마 16:22~23),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고 길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마 20:20~28),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신 뜻을 저버리고 주님이 힘들어하실 때 주님을 돕지 않는 모습(마 20:22~23, 26:39),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를 책망하는 모습(마 26:8~9),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마 26:36~46),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힐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마 26:55~56) 등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마태는 낱낱이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못난 모습이 마태복음 전체 줄거리인 '십자가 복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도를 따라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루하루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

34) Richard N. Longenecker et al., *신약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의 유형 (Patterns of Discipleship in the New Testament)*, 박규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83.

을 좇아야 한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선교를 떠났다는 선교 활동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는 최후의 명령을 하셨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 제자로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마 5:13~16)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 중에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혹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권고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가리킨다. 이때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다. 마태의 제자도는 물량주의, 거대주의, 그리고 성공제일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이때 '착한 행실'이란 단순한 도덕적인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한 행위이다. 따라서 제자들의 착한 행실의 목적은 자기 과시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도를 이루기 위해 착한 행실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

#### 나. 마가의 제자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적 서술(narrative)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즉,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무슨 의미인지를 말해주는 '제자도'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기독론'이라는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sup>35)</sup>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그의 권능의 활동만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물로 드리는 주님의 십자가 수난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주제로 하여 전개한다.<sup>36)</sup> 따라서 마가의 제자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35) Longenecker et al., *신약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의 유형*, 29.

36) 김광수, *마가 마태 누가의 예수이야기*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118.

(막 3:31~35). 그리고 마가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했다.

마가는 열두 제자를 '긍정적인 역할'(막 1~6장)과 '부정적인 역할'(막 8~10장, 14~15장)을 수행한 사람들로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제자들의 난관과 실패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마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생생히 묘사함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도가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마가는 성도들에게 열두 제자가 실패한 제자도의 과정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만든다.<sup>37)</sup> 또한, 마가복음은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닌 상태로 열두 제자가 주님을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회복되어 교회에 주어진 복음 전파 사명자로 임명되었음을 보여 준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에 교회에는 로마와 유대 종교지도자들로부터 받은 핍박과 헐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실패한 성도들도 베드로처럼 용서와 회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소망'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제자도의 메시지 중 하나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때론 베드로처럼 환경에 의해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제자도를 행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제자도를 행하는 데 실패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 여전히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당시에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회복시켜 주셨다. 이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는 제자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사랑스러운 손길과 회복의 은혜를 늘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를 격려해 주고 그 사람에게도 제자도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37) Longenecker et al., *신약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의 유형*, 50.

#### 다. 누가의 제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인 누가에 의해 쓰였다(눅 1:1~4; 행 1:1). 누가가 쓴 첫째 작품을 누가복음이라고 칭한 것은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한 마가를 따른 것이며, 다른 작품을 사도들의 행전인 사도행전이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행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sup>38)</sup> 그리고 누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도행전 속에 베드로와 바울의 수많은 설교와 연설을 포함함으로써 그 당시에 살던 원래 청중은 물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와 연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해주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sup>39)</sup>

누가복음은 전반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비해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자들의 언행을 묘사하고 있다. 누가는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을 전개해 나가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건들을 축소하거나 생략하여 표현했다(마 26:56; 막 14:50).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에서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신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마 16:13~23; 막 8:27~33; 눅 9:18~2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누가는 다른 공관복음의 기자들보다 좀 더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도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리처드 롱제네커(Richard N. Longenecker)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라는 논문에서 이야기를 통한 누가의 제자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제자도이다(눅 10:25~37). 두 번째, '지속해서 간청하는 친구 및 과부 이야기'를 통해 '끈기 있는 기도'가 제자도이다(눅 11:5~13, 18:18). 세 번째, '어리석은 부자 및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참된 부에 가치를 두는 것'이 제자도이다(눅 12:13~34, 16:19~31). 네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와 열므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제자도이다(눅 13:1~9, 17:7~10). 다섯 번째, '큰 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제자도이다(눅 14:15~24, 16:19~31). 여섯 번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및 탕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는 분임을 알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제자도이다(눅 15:1~32). 끝으로, '바리새인과 세리

38) 김광수, *마가 마태 누가의 예수이야기*, 403.

39) John R. W. Stott, *사도행전 강해 (The Spirit, the Church and the World)*, 정옥배 역 (서울: IVP, 2002), 28-29.

이야기'를 통해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도이다(눅 18:9~14).<sup>40)</sup>

누가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눅 12:42~48)를 통해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주님이 찾으시는 청지기에 대한 질문을 통해 참된 청지기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말해준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눅 12:42). 공관복음에서 '청지기'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한 번, 누가복음에서 여섯 번 나온다(마 20:8; 눅 8:3; 12:42; 16:1, 2, 3, 8). 이것은 누가의 제자도에 있어 '청지기'가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임을 말해 준다. '청지기'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οἰκονόμος(오이코노모스)'로 '집'을 가리키는 명사 'οἶκος(오이코스)'와 '관리하다'라는 뜻의 동사 'μένω(메노)'가 합성된 형태로 '집을 관리하는 자'를 가리킨다. 당시의 청지기는 여러 종이 나 자유인 가운데 특별히 주인에 의하여 선택되어 그 집에 속한 재산과 종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자였다.<sup>41)</sup>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는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를 전혀 갖지 않고 임시로 주인으로부터 위탁된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또한, 선한 청지기의 모범적인 자세와 악한 청지기의 불의한 자세가 대조되어 표현된다. 그리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 본문 바로 뒤에 '시대의 징조에 관한 말씀'(눅 12:49~59)이 따라온다. 이것으로 보아 누가는 청지기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청지기 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 공동체임을 알려주고 있다. 즉,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누가의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sup>42)</sup>

예수님께서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덕목 중 하나는 '진실한'으로 번역된 'πίστος(피스토스)'이다(눅 12:42). 헬라어적 의미로는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을 지닌다. 즉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덕목으로는 '지혜'로 번역된 'φρόνιμος(프로니모스)'이다. 이 단어는 '슬기로운', '신중한', '사려 깊은'이라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주님이

40) Longenecker et al., *신약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의 유형*, 107-152.

41) 제자원, *누가복음*,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vol. 107 (서울: 제자원, 2006), 426.

42) Longenecker et al., *신약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의 유형*, 148.

찾으시는 청지기는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잘 알아 주인의 집을 주인이 원하는 데로 잘 관리하고 유지함으로써 주인의 돌아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를 가리킨다.<sup>43)</sup> 그러므로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오직 충성과 지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적 삶을 지향해야 한다.

누가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통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우리말 '비로소'로 번역된 헬라어 'πρωτον(프로톤)'은 본래 '최초로'란 의미를 지닌다.<sup>44)</sup> 이 말은 마치 'Hērōdianoι(헤롯의 사람)', 'Kaisarianoi(가이사의 사람)'을 칭하듯이 'Christianoi(그리스도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이다.<sup>45)</sup>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은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박해자들보다 더 크심을 믿고 인내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다.<sup>46)</sup>

이처럼 안디옥에 살았던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어내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삶을 곁에서 본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 칭한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제자도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자도를 내면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날의 교회도 2000년 전 안디옥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호칭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지금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다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 라. 요한의 제자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제자도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다. 요한은 '제자들이 그를 믿

43)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누가복음*, 107:426.

44) 이재철, *사도행전 속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서울: 홍성사, 2012), 233.

45) Stott, *사도행전 강해*, 239.

46) 이재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236.

으니라'(요 2:11), '그를 믿는 자마다'(요 3:16~17, 36), '내 아버지의 일을 믿으라.'(요 10:37~38), '그리스도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 11:27),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요 12:44~46),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 17:3), '우리가 믿고 알았삽나이다'(요 6:69),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요 20:31), '보혜사 성령 그가 생각나게 하리라'(요 14:16~17, 26)고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이 믿음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완성됨을 보여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과 성령 받음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하게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첫 발걸음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요 6:51~66).

요한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제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sup>47)</sup>

첫째,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1~32). 참된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할 때 시작된다. 먼저 주님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면 내적인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은 점진적으로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삶의 가치 체계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바른 가치관의 선택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표현된다. 이때 밖으로 표현된 참된 제자도의 행동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삶의 매 순간 다가오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이다.

둘째,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초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았으나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다.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힘을 공급받았기에 가능했다(요 4:12~21; 14:17~21).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47) Wilkins, *제자도*, 264-279.

의 사랑'은 주님이 주신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삶을 말한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듯이 주님의 제자들도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도 변화된다.<sup>48)</sup> 세상은 이러한 새 계명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셋째,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 15:8). 생명 있는 가지는 자연적으로 나무의 종류와 일치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으면 '성령의 열매'(갈 5:22~26)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새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요 4:34~38)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요한이 요한 서신들을 쓸 당시 요한의 공동체는 다툼과 반목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요한의 공동체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공동체를 떠나는 상황이었다.<sup>49)</sup>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요한이 쓴 서신들도 본질상 요한복음과 같은 용어로 제자도를 묘사한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도의 중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진리의 영'(요일 4:6)이신 성령에 의해 '진리를 아는 것'(요일 2:21)이 진정한 제자임을 보여주는 표식이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23~24). 요한이서에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요이 1:1~2), '서로 사랑하는 것'(요이 1:5~6), 그리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요이 1:7)이 제자도의 바탕임을 말한다. 또한, 요한삼서 역시 '진리 안에 거하라'(요삼 1:3~4)고 제자도로 권면한다.

48) Charles A. Dodd,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58), 405.

49) Longenecker et al., *신약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의 유형*, 186.

그러므로 요한은 분열된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제자도라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자 세워진 교단들이 오히려 파벌과 권력과 금권에 의한 이권 다툼 때문에 분열되고 있으며,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도 크고 작은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사는 우리가 요한이 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온전한 제자도를 이루어 간다면 갈등으로 인한 분열이 성령님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 마. 바울의 제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열두 제자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았으나, 다메섹 도상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지닌 복음 전승의 연속성과 동일성 위에(마 5:44; 눅 6:27; 롬 12:17)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며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자신도 사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말한다(갈 3:1; 고전 15:12; 고후 5:16).<sup>50)</sup> 또한, 바울은 율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갈 3:24~26; 롬 10:4).

바울은 서신서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다양한 현실적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답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룬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믿음으로 인한 복음과 구원과 칭의와 성화를 언급하면서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교회, 사회, 세상과 관련된 삶)을 제시하고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따라서 온전한 제자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50) F. F. Bruce, *바울신학 (Paul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 정태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96-112.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메시지로 교회 내의 성적 부도덕(5장), 소송(6장), 혼인(7장), 우상 제물(8장), 권리주장(9장), 영적 자유(10장), 예배와 성찬(11장), 은사(12~14장), 부활(15장), 그리고 헌금(16장) 등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다. "오직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전 1:24). 따라서 온전한 제자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 교회의 어지러운 상황과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사도로써 행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며(고후 2:14~6:10),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열고 악에서 떠나 회개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것을 권면하고(고후 6:11~7:16), 올바른 연보와 사도권에 대한 자신의 변호(고후 8:1~12:18)를 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고후 5:1). 따라서 온전한 제자도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했으며 스스로 구원이나 성화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갈 3:22; 5:19~21) 인간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게 됨을 말한다(갈 2:16-21; 3:1-15, 24). 또한,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갈 4:6, 7; 5:13~26). 따라서 온전한 제자도는 '이신칭의'(以信稱義)라는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삶을 뜻한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유의 통일'(엡 1:20; 2:13~16; 4:4~6)을 다룸으로써 당시에 편만해 있던 부조화와 분리된 헬라와 유대사상, 선과 악, 영과 육의 이분론적 접근을 주 안에서 해소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0). 따라서 온전한 제자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자기 비우심을 통해 보이신 겸손으로 생활하고(2장), 여러 가지 이단을 경계하며(3장), 마음을 같이하여 주 안에서 기뻐할 것(4장)을 권면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 따라서 온전한 제자도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안

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당시에 만행하던 '율법주의적 요소'(골 2:11~17), 천사 숭배와 영지주의와 잘못된 금욕주의와 같은 '이방 철학적 요소'(골 2:18, 20~23),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주의적 요소'(골 3:1~4:6)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라는 사상을 부각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6, 7). 따라서 온전한 제자도는 이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가치관을 이기기 위해 주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신론(新論)(살전 1:9),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라는 기독교론(基督論)(살전 1:1),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성령론(聖靈論)(살전 1:5),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구원론(救援論)(살전 5:10),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날 종말론(終末論)(살전 4:13-28)을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따라서 온전한 제자도는 바른 신학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 잘못된 '재림 의식'을 바로잡고 주의 재림에 관한 바른 견해와(살후 2:1~17) 하나님의 신실성에 바탕을 둔 기도와(살후 3:1~5) 규모 있는 경건의 훈련의 필요성을(살후 3:6~15) 강조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살후 3:13). 따라서 온전한 제자도는 올바른 재림 사상을 갖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낙심치 않는 삶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던 영지주의 철학으로부터 교회와 목회자를 바르게 보호하기 위해 예배에 관한 교훈(딤후 2:1~15), 교회 리더(딤후 3:1~16), 이단(딤후 4:1~16), 그리고 각 계층(노인, 젊은이, 과부, 장로, 중)에 대한 훈계를(딤후 5:1~6:2)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친다. 또한, 6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자족하는 마음, 부의 위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명령, 약속대로 오실 하나님, 부유한 자들에 대해 충고를 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

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 하였도다." (딤후 6:11, 12). 따라서 온전한 제자도는 지속적인 요소로 인해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말씀 안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당시에 만연하던 신화와 끝없는 족보 문제(딤후 1:4)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것(딤후 4:3)과 같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스승인 바울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복음을 맡은 목회자 및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딤후 1:14), 가르치며(딤후 2:24), 거하고(딤후 3:14), 전파해야 할 것(딤후 4:2, 5)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딤후 1:8). 따라서 온전한 제자도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 장로의 자격(딤후 1:5~9), 교회 내의 여러 계층에 관한 권면(딤후 1:10~2:10), 복음에 관한 설명(딤후 2:11~15), 국가 및 사회생활에 관한 권면을(딤후 3:1~11) 한다.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딤후 2:7, 8). 따라서 온전한 제자도는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성도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다.

## 제 2 절 제자훈련의 이론적 토대

제자훈련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로서 제자도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한 말씀 훈련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과정이다.

### 1. 제자훈련의 정의

제자훈련은 교회 안에서 양질의 특수층의 성도들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닮아가는 데 목적을 두며,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동참하고 계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어떤 사역이든 원리와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 그 사역은 지속성이 결여되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으며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제도와 조직과 형식은 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한 제자훈련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적용되어야만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제자들에게 몸소 제자훈련을 가르치셨으며, 그의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을 시킬 것을 위임하였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8~19).

목회의 핵심이 사람이듯, 제자훈련의 핵심 또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변화를 통해 제자도를 이루어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 따라서 제자훈련이란 성도들이 제자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하나의 구체적인 훈련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자도의 원리는 대위임령(마 28:18-20)에서 밝힌 것처럼 ‘제자를 삼는 것’,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2:2).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 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제자훈련의 원리이다.

가르침의 목표는 순종에 있다.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행동으로서 결국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게 된다.<sup>51)</sup> 그리고 제자 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 친교 모임) 안에서 제자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 제자훈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지식적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는 ‘양육’이 아니라, 삶에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한다.

## 2. 제자훈련의 목적

데이비드 왓슨은 자신의 저서 '제자도'에서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Schopenhauer)의 말을 인용하여 "사람들은 얼어붙은 겨울밤을 지새우는 한 때의 고슴도치와 같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원하는 동시에 서로를 다치게 하기 쉬운 대인관계의 양면성을 지닌 존재임을 잘 표현한 말이다.<sup>52)</sup> 성도들은 서로의 교제를 통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는 동시에 상대방으로 인한 고통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성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삼중적인 소외', 즉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진정한 자아로부터 소외'가 생겼다.<sup>53)</sup> 죄로부터 발생한 '소외'로 인해 결핍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 어린 선한 관계를 원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가진 죄악성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타인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장벽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여 성도 간의 관계를 꺼리는 경향을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적인 행동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이루는 과정에서 치러야만 하는 '거룩한 대가'(희생)를 피함으로써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이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게 되었을 때, 만일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면 지금의 교회는 결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성도는 '세례'라는 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51) Hull, *온전한 제자도*, 357.

52) Watson, *제자도*, 334.

53)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1), 23.

공식화했다. 즉 머리로부터 물이 온몸을 씻어 내리게 하는 의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져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극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로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많은 성도가 '의인으로 칭함'의 그림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벌 받아 죽었다는 '법정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은혜로만' 그리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구원받았기에, 이제 윤리적 삶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삶이 결여된 믿음 인식'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거론하면 지나간 율법주의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많다. 이로 인해 오늘날 교회의 기독교적 윤리가 개인 윤리나 사회 윤리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부터 나온 것이다. 성경적 '의'는 기본적으로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함'을 포함한다. 따라서 '의'는 '법정적 개념'과 '관계론적 개념'으로 함께 볼 때 바른 '성경적 의'가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을 바탕으로 김세윤 교수는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를 '칭의의 현재 단계'로도 본다.<sup>54)</sup>

'기독교적 복음'(롬 1:3~4)과 '구원론적 복음'(롬 1:16~17)의 일치 속에서 바른 복음에 대한 선포와 훈련이 요구된다. 많은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현세적인 형통함에만 국한하거나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여 내세에서 영혼이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는 관심이 부족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단지 주일에 교회 가고, 기도하며, 헌금하고, 음식을 가리는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열심당이거나 소극적 경건주의에 빠져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율법적으로 습관화된 전통 생활에서 벗어나 '사랑의 이중계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도를 이루어야 한다.

54) 김세윤, *칭의와 성화*, 117.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곧 사단의 나라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리하여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완전한 ‘수확’의 형태는 아니고 ‘첫 열매’의 형태로나마) ‘오는’(실현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살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sup>55)</sup>

### 3. 예수님의 제자훈련 핵심 요소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후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는지가 사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주님의 제자훈련은 교재를 가지고 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 많고 연약한 제자들과 늘 함께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많은 정성을 쏟으셨다.

#### 가. 선택과 동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훈련의 핵심을 ‘사람’에게 두었으며 자기가 원하는 12명의 소수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막 3:13).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을 따라올 것을 명령하셨다(마 4:19; 막 1:17). 그리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토론하는 자리, 그리고 행하신 많은 기적의 현장은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모습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막 3:14). ‘백문 불여일견’(百聞 不如一見)이라는 말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말씀도 생각났겠지만, 현장에서 시청각 가운데 오감으로 배우고 익힌 것들이 더 깊이 남았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 제자훈련이 교실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은 제자훈련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나. 시범과 섬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사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55)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113.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4, 45)고 제자훈련의 정신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권세 있게 가르치셨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선생으로서 낮아져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제자훈련에 임하셨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실천'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섬김의 시작이었으며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섬김을 완성하셨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자신의 가르침을 보여주셨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은 당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섬김을 받는 세상의 방법과 역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근거한 거룩한 방법이다.

#### 다. 기도와 말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몸소 기도하심으로써 기도 훈련을 시키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홀로 개인 기도를 하셨고(눅 5:16), 제자들과 함께 기도기도 했으며(눅 9:28), 새벽기도도 하셨고(막 1:35), 밤을 새워가며 제자들과 함께 기도 하셨다(눅 6:12). 그리고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막 9:29).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서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 갔으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기도문을 요청했을 때, 그 대답으로 주님께서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눅 11:1~4).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을 활용하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시키고자 풀어 해석해 주셨으며 실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가르침으로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 라. 위임과 돌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 수준에 맞추어 해야 할 일들을 맡기셨으며, 그 일을 감당하

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권면과 능력을 주셨다(마 10:1~23; 막 6:7~11; 눅 9:1~6). 그리고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하셨으며 그 과제를 함께 풀어감으로써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다(막 6:34~44; 눅 9:10~17; 요 6:5~13). 또한, 제자들이 자신들이 한 사역들을 주님께 낱알이 고할 때 주님께서는 그 결과물보다 제자들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막 6:30~31). 이처럼 주님의 제자훈련은 제자들의 수준에 적합하게 훈련 강도를 조절하여 기계적인 훈련이 아니라 제자들을 우선시하는 돌봄의 훈련이 되었다.

#### 마. 전도와 재생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몸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훈련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도 실제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증거 하는 실습을 하게 했다. 이것은 제자로서의 사명 중에 중요한 요소가 전도임을 말해 준다. 그리고 전도를 보내실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원칙, 즉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알려 주셨다(막 6:7-9).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20)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사람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하신다.

#### 바. 사랑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사역할 때는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때에도 변하지 않았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13:1). 제자들은 초기에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즉 성만찬식과 세족식이 있던 밤에도 ‘누가 크냐?’로 다툼이 났다(눅 22:24). 이처럼 제자들은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바라보고 주님을 좇았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에는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다. 그리고 제자 중 가롯 유다는 사탄의 꾀계에 넘어가 예수를 팔게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다. 또

한,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으로 착각하며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흩어졌던 자들이었다. 이러한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제자훈련의 중요한 원리이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며, 제자들 상호 간에도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다. 이때 서로 사랑하는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 13:34~35).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힘 있게 전파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끝까지 받아 주며 인내하셨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 안에서 제자들은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한 번 훈련 받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배우며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성과 싸우는 훈련이 필요하다.

#### 4. 바울의 제자훈련 방식

21세기처럼 교통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근거한 제자훈련을 했다. 바울의 서신서 내용과 독자들을 향한 바울의 자세는 오늘날 제자훈련을 하는 훈련자와 훈련생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 가. 예의 바른 가르침

바울은 각 교회가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도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바로 설 것을 교훈하며 바른 교리에 대해 편지로 각 교회에 알렸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지역 교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분쟁과 문제 때문에 생긴 바울 자신의 고조된 감정과 가르치고자 하는 생각을 먼저 표현하지 않고 독자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말’을 통해 지역 교회에 대한 문안과 감사의 말로 편지를 시작한다. 그 후에 바

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면하며 교회 분쟁의 현 상황과 원인과 결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또한, 편지의 마무리는 ‘인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며 마무리를 한다. 이러한 바울의 예의 바른 태도는 이 시대 제자훈련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할 때 서로에게 예의 있는 모습으로 훈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교리와 교훈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제자도에 근거한 논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제자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

#### 나. 각 상황을 고려함

바울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해 성령님 안에서 예리한 관찰력과 직관력으로 제자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풀어나갔다. 이때 바울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오직 편지를 받는 교회의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바울은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제자도를 선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처럼 제자훈련 훈련자가 훈련생을 인도할 때 훈련생 각 사람이 처한 환경과 문제와 신앙 수준에 맞추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냄

바울은 각 지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해, 이단사상, 분쟁,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해답으로 삼아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바울처럼 당대 석학인 사람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앞세웠듯이 훈련자도 제자훈련을 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보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 훈련생들이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 3 절 선교의 이론적 토대

선교는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사역이다. 따라서 선교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로서 온전한 제자도를 이루어 나가는

헌신이 동반된다.

### 1. 선교의 정의

'전도'(傳道)는 헬라어 '유양게리오마이'(euangelionmai)에서 온 것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을 지니며, 영어 '에반젤리즘'(evangelism)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된다.<sup>56)</sup> '선교'(宣敎)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텔로'(apostelo)와 '펨포'(pempo)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송'을 의미하며, 라틴어 '미토'(mitto)에서 유래한 영어 '미션'(mission), 즉 '보내다.'라는 뜻을 지닌다.<sup>57)</sup> 포괄적 측면에서 선교란 문화가 다른 지역 또는 신앙이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 자신들의 신앙을 전하는 종교단체의 활동을 말한다.<sup>58)</sup> 그리고 기독교의 선교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른 지역에 가서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타 문화권인 해외로 가서 복음 전파를 통해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가지도록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선교가 된다.<sup>59)</sup>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인종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자기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증거 하는 사역을 말한다.<sup>60)</sup>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마음만 먹으면 지구 상 어디든지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신속하게 알게 되어 온 세계가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전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지역 또는 문화에 따라 구분했던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 많이 희석되었다. 오히려 같이 사는 부모와 자녀 간의 문화 차이가 타 문화권 사람들보다 더 클 때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따로 구분하여 사역해 왔던 옛 방식에서 벗어나 오직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바르게 소유했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56) 홍기영, *선교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서회, 2001), 192.

57) Scott A. Moreau, eds.,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2000), 636-637.

58) 한영제, *기독교대백과사전* 8, 1086.

59) 한영제, *기독교대백과사전* 8, 1087-1089.

60) 김승호, *복음주의 선교 신학에 대한 이해* (서울: 예영 B&P, 2008), 37-38.

옳다고 본다.

## 2. 선교의 목적

선교는 단순히 인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며 성 삼위일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성부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계획하시고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을 통해 그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신 활동의 표현으로(마 11:10; 15:24; 눅 4:18),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인간이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교의 길을 열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종말까지 교회를 세우고 신실한 자들을 선교의 일꾼으로 파송하는 등 선교의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냄으로써 선교를 실증하셨고, 예수님은 죄의 장벽을 무너트림으로써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으며, 성령님은 선교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다.<sup>61)</sup> 이와 같은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보면 하나님은 '선교의 창조자'이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이며, 성령님은 선교에 교회가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진행하는 '인도자'이다.<sup>62)</sup>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선교에 대해 순종을 요구하신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사람의 전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 복음이 펼쳐진다. 즉, 선교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 따라 복음을 듣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선교는 선교 대상자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기에 선교 대상자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 대상자의 가치관과 문화관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선교하는 사람은 자신이 혼합주의에 회석될 수 있음을 늘 인식하며 주의해야 한다.

선교의 영역은 이 세상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61) 한영제, *기독교대백과사전* 8, 1101-1103.

62) Moreau,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815.

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그리고 선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행 2:17). 또한, 선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피조물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고전 15:20~28; 엡 2:13~19; 계 21:1~5).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수단이지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선교의 주체는 오직 삼위 일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 3.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 기간에 '선지자'로서(신 18:15~16; 눅 7:16, 26; 13:33), '제사장'으로서(히 7:25; 9:11~14), '왕'으로서(마 2:2; 27:11; 눅 19:38; 요 6:15; 19:19~22), '종'으로서(요 13:1~11), '복음 전도자'로서(마 4:19; 막 1:15; 눅 15:7~10; 요 1:12~13; 4:7~42; 20:31; 갈 1:16), '사도'로서(마 10:40; 16:19; 막 9:37; 눅 5:1~12; 10:16; 요 3:17; 20:23), '교사'로서(마 15:14; 눅 22:31~32; 요 1:37~39; 2:1~11; 2:13~17; 4:1~26) 가르치시며 고치시고 훈련하였다.<sup>63)</sup>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자연을 다스리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선포했다(마 28:18~20).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모두 바침으로써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천국에서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롬 12:1~2; 고전 3:13~15).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의 모든 언행에서 '종의 모습'의 통일성을 보였다.<sup>64)</sup> 예수님은 종 된 모습으로 섬기시며 복음을 전

63) Arthur F.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Announcing the Kingdom)*, 임윤택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324-347.

64) Reginald H. Fuller, *The Book of the Acts of God* (New York: Doubleday, 1960), 277.

했다(요 13:1~17; 빌 2:5~11).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를 선출하고 그들과 함께 공생애 기간을 보내며 열두 명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가르침'과 '책망'과 '끊임없는 사랑'으로 보살피셨다. 그리고 자신의 열두 제자와 70명의 제자에게 복음 증거를 위해 권세와 능력을 주어 파송하였다(마 10:1~15; 막 6:7~13; 눅 10:1~20).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듣는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비유(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집주인 비유, 탕자 비유 등)로 말씀하셨다.<sup>65)</sup> 이와 같은 제자훈련의 과정을 거쳐 예수님께서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의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였다.

#### 4. 바울의 선교

바울은 '오직 은혜'(sola gratia)와 '오직 믿음'(sola fide)의 복음이 진리 됨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정신을 핵심적인 지침으로 삼아, 인간들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포 속에서 약속된 예수님의 죽음 의미를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방인들도 율법의 행위 없이 구원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sup>66)</sup> 바울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훈련받을 것을 권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군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딤후 4:6). 그리고 바울은 적용주의자적 선교접근 방법으로 이방인 선교를 했다.<sup>67)</sup>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과 같이 되어 선교했다(고전 9:19~23).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영접하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해 힘썼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

65) Campbell G. Morgan, *하나님 나라의 비유(The Parables of the Kingdom)*, 오광만 역 (서울: 풍만, 1987), 11-24.

66) 김세윤, *바울 신학과 새관점* (재판; 서울: 두란노, 2009), 481.

67)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480-482.

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13-14).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후 11:23~29). 또한, 바울은 복음 증거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신의 영광과 기쁨으로 여겼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살전 2:19).

바울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즉 레위족속인 바나바(행 4:36), 선지자 실라(행 15:32), 혼혈 유대인 디모데(행 16:1), 회당장 소스테네(행 18:17),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행 18:24), 마게도냐 출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행 19:29),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행 20:4), 헬라인 디도(갈 2:3), 이방인 의사 누가(골 4:14), 여자인 뵈뵈와 브리스(롬 16:1~3), 교법사 세나(딤후 3:13) 등과 함께 팀으로 선교하였다.<sup>68)</sup> 바울이 보여 준 팀 사역의 모습은 선교할 때 지녀야 할 사역 자세이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 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선교 대상자들이 가진 문화 차이를 수용하며 반응했다(고전 1:23; 9:22). 또한, 바울은 주님을 따르고 전하는 데 늘 모범이 되기 위해 힘썼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전 11:1).<sup>69)</sup>

#### 제 4 절 요약 및 결론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헌신하는 정신이며, 그리고 주 안에서 성장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때 '제자도'는 크게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자훈련'은 '성도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제자도'를 이루는 사역이고, '선교'는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제자도'를 이루는 사역이다.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비례한다.<sup>70)</sup>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68)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478.

69)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483.

의 제자로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며(요 15:16), '예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요 1:44~51), '순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며(마 16:24; 눅 6:46), '섬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마 10:8; 막 1:17; 눅 6:38),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며(빌 1:29; 딤후 4:10~14; 행 20:31), 그리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전 1:26~29)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제자도'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순종과 섬김과 고난을 위하여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sup>71)</sup>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며 복음 전하는 삶, 희생하는 삶, 모범이 되는 삶,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온전한 '제자도'를 이루는 주님의 참 제자이다(눅 14:26~33).

---

70) 유기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서울: 규장, 2015), 23.

71) Watson, *제자도*, 19-36.

## 제 3 장

### LA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

2장에서 제자도의 의미와 제자도에 근거한 제자훈련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았다. 성경에 근거한 제자도의 정신과 제자훈련의 근본원리는 변할 수 없지만, 제자훈련의 프로그램은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적절하게 바꾸어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미국 LA에서 개척되어 성장하고 있는 LA사랑의교회는 다중문화권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이민교회이다. 필자는 LA사랑의교회 개척 초기에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교회의 빠른 성장을 경험하였다. LA사랑의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개척교회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일 분명한 '제자도'에 대한 목회철학이 없었다면, 제자훈련은 얼마 가지 못해 포기되었거나 변질하였을 것이다. LA사랑의교회는 개척 초기에 개척교회가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자훈련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였기에 개척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평신도를 깨워 함께 동역하는 제자훈련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자연적인 교회 성장에도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제자훈련은 이른 시일 안에 눈에 띄는 결과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요구된다. 따라서 제자훈련의 성공 여부는 목회자의 목회철학에 달려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LA사랑의교회의 지역적 특성과 목회철학 및 비전에 대한 목회적인 이해를 개괄하고자 한다. 그리고 LA사랑의교회가 실행하는 제자훈련을 위한 기초단계인 양육과정, 즉 새신자반과 새가족반과 새일꾼반을 살펴본 후 제자도를 이루기 위한 훈련으로서 제자훈련의 목적과 모집 및 실제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자훈련이 이민목회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LA사랑의교회에 정착되었는지 알아보고, 제자훈련이 LA사랑의교회에 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LA사랑의교회의 목회적 이해

목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이민목회를 하는 LA사랑의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LA이민자들에 대한 이해와 사고가 필요하다. 이민목회는 고국을 떠나 본 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이기에 '이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목회적 차원에서 바른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 1. LA사랑의교회 지역적 특성과 상황

LA사랑의교회는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한인타운(Koreatown) 근처에 있는 사무실 빌딩에서 개척 감사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 가. 지리적 특성

미국 LA지역은 인구 370만 명, 면적 1,200km<sup>2</sup>(서울 면적의 두 배)로 80개의 도시로 구성된 대도시로 서쪽은 태평양과 접해 있고 북쪽과 동쪽은 산으로 둘러싸인 널찍하고 평평한 분지에 있다. LA는 연중 온난한 아열대성의 기후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늘 화창한 건조한 사막 기후를 띠며, 샌안드레아스 단층지대에 있기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고 언제라도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LA의 인종별 인구비율은 라틴아메리카 41%, 백인 36.9%, 아시아인 11.5%, 흑인 10.3%로 나뉜다. 그리고 이처럼 다민족이 살고 있는 LA는 도시범죄, 공해, 인종 간의 마찰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초기 이민 선조들(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 이민자 103명의 제1기 이민세대)의 희생과 헌신 속에, 1968년 이민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건너온 이민 2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세워진 LA 한인 사회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sup>72)</sup> 2010년 미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000년도에 1,076,872명에서 2010년에는 1,423,784명으로 32.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LA 도시에

72) 중앙일보, “미국 여행 가이드”, 53-87.

는 2000년도에 91,595명에서 2010년도에는 18.2% 증가한 108,282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sup>73)</sup>

#### 나. 문화적 상황

LA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LA사랑의교회는 이민교회로서 한국을 비롯하여 남미, 중미,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온 한인 이민자들이 출석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LA사랑의교회는 이민 1세, 1.5세, 2세들이 함께 모여 있어 한국과는 상황이 다른 특이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경험한 다양한 국가에서의 삶과 서로 다른 출신, 성장배경, 교육환경 때문에 '다양성'이 늘 존재한다. 그리고 성도 본인이 태어나서 성장한 국가를 떠나 타국에서 정착한 이민경험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향을 띠게 하였다. 즉,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보다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장소라는 마음을 갖게 해, 성도들이 한 교회에 정착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경향이 많다. 특히 LA는 한국에서 갓 이민 온 사람들이 한국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 처음 정착하기가 수월하기에 초기 이민자들이 거쳐 가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LA에서 어느 정도 미국의 문화를 익히고 나면 자녀들 교육 문제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해 주변 도시로 이사하는 경향이 많아 성도들의 이동이 잦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교회는 성도들 간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 2. LA사랑의교회 현황

LA사랑의교회는 이민자들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그래서 LA사랑의교회는 이민자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척되었다.

73) “[한인 인구 Census]가주\*뉴욕 인근 주로 뻗는다,” *미주중앙일보* (2011년 5월 25일). 2016년 2월 인용. Online: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03461](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03461).

### 가. 교회 개척 배경

LA사랑의교회는 2006년 12월 24일에 모 교회인 남가주사랑의교회의 지원을 받아 LA 한인타운 근처에 세워진 교회이다. 개척될 당시 LA사랑의교회는 성도의 대부분이 남가주사랑의교회에 다니며 LA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리고 남가주사랑의교회의 행정과 제자훈련에 익숙한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LA사랑의교회 개척에 동참함으로써 LA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일찍 갖췄다. 그리고 김기섭 목사는 LA사랑의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9년 동안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예배, 훈련, 교육부, 청년부, 교구, 행정, 그리고 선임으로 섬기면서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를 배우며 꿈꿔왔다.

LA사랑의교회는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를 핵심 가치로 삼아 제자훈련을 통해 이민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이다. 교회의 주된 구성원인 이민 1세와 1.5세들은 조국을 떠나 미국의 다문화 속으로 합류할 때 오는 언어의 차이, 심리적인 압박, 생활 방식의 변화, 법질서의 차이, 사회 시스템의 차이 등으로 인한 문화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 또한, 이민 2세들은 한국인이며 동시에 미국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가정 안에서도 문화와 언어로 인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민자들로 구성된 LA사랑의교회는 다양한 잠재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불안한 이민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LA사랑의교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주요 정서는 '안정'과 '돌봄'이다.

### 나. 비전

LA사랑의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4가지 비전을 품고 시작하였다.

첫째, LA사랑의교회는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마음껏 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살게 하려고 교회 안으로 성도들을 부르셨다. 따라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깨달음 위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LA사랑의교회는 '이민 2세를 책임지는 교회'이다.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공을 거둬야 한다. 자녀들이 기회와 공평의 땅인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는다든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민 2세들에게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사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신령하고 실력 있는 젊은 세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세계와 열방, 족속과 방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LA사랑의교회는 '이민 가정을 치료하는 교회'이다. 이민자는 더 잘살아 보려고 이민을 왔지만, 현실은 눈물과 한숨이 연속되는 삶이다. 뻣뻣하고 고단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 떠나올 때 품은 꿈을 잃고 부부관계가 냉랭해지고 자녀들과도 멀어지는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많다. 따라서 교회는 이민 문화의 충격, 각박한 생활, 언어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민자 가정의 어려움을 치유해야 할 사명감이 있다.

넷째, LA사랑의교회는 '선교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이다. 모든 교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충실히 순종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가 제자 삼는 일에 본질과 핵심을 잃지 않고 매진 한 후에는 결국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세계로 사역의 장을 넓혀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지혜로운 선교 전략과 자원을 발굴하고 훈련함으로써 성도들이 선교의 삶을 살게 도와야 한다.

#### 다. 목회 방향

LA사랑의교회의 목회는 3가지 목회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첫째, LA사랑의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개인의 변화와 성숙’이다. LA사랑의교회가 추구하는 온전한 제자는 개인의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때 ‘온전한 제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인격의 그릇을 키우고 있는가?”,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있는가?”,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가?”와 같은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둘째, LA사랑의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건강한 교회’이다. 개인적 성숙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LA사랑의교회는 훈련, 소그룹(교재/양육/전도), 사역(섬김) 그리고 예배로써 교회의 건강함을 이루어 나간다.

셋째, LA사랑의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차세대 지도자 양성’이다. 개인의 성숙과 건강한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개인의 성숙과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LA사랑의교회는 이를 위해 MTS(Ministry Training School/사역훈련학교), Campus Ministry, Christian Boarding School로 섬기고자 한다.

## 제 2 절 제자훈련 준비를 위한 양육과정

건강한 교회는 새로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과 기존신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은혜를 공급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양육은 성도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성도는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기초와 균형을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LA사랑의교회는 성도들 각자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 눈높이 양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양육 과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제자훈련을 통해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와 함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처럼 억지로 제자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은 오히려 중도에 하차하거나 훈련 분위기를 낮추는 역할을 하여 다른 훈련생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훈련에 임하는 동기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과정이 양육과정이다.

### 1. 새생명반

새생명반은 교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교인들을 위해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루는 과정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사 후에 모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교회와 그 중요성!”로 구성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재로 목회자가 4주간 가

르친다. 이 새생명반은 불신자 또는 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기 위해 하는 양육과정의 시작이기에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세심한 준비와 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게 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새생명반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기에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로 함께 진행된다. 이처럼 새생명반은 신앙생활의 첫발을 바르게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양육과정이며, 새생명반을 이수한 성도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2. 새가족반

다른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던 성도 및 직분자가 LA사랑의교회에 등록하게 될 때, 등록된 모든 교인과 새생명반을 이수한 성도들은 새가족반을 이수해야 한다. 새가족반이란 LA사랑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신앙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사 후에 모여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영적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4개 분야에 대해 4주간 배움으로써 서로 배경이 다른 신앙을 하나로 묶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고 새가족반을 이수하면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시간의 목적은 담임 목사를 통해 LA사랑의교회의 비전과 추구하는 방향과 진행되고 있는 사역 등을 소개 받고 기존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다. 새가족반을 이수한 교인들은 ‘새일꾼반’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3. 새일꾼반

새일꾼반은 LA사랑의교회의 목회 중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평신도 훈련프로그램으로 새가족반을 수료한 성도를 대상으로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는 양육 프로그램이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해 먼저 훈련받은 기존 성도가 같은 교재를 가지고 소수(1~3명)의 훈련생과 주 중에 만나 16주 동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눈다. 그리고 새일꾼반 과정을 이수한 평신도 가운데 새일꾼반 훈련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새일꾼 지도자반을 통해 심화

학습을 하게 된다. 그 후 다양한 객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검증된 성도에 한해서 훈련자로서 다른 훈련생과 만나 일대일 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LA사랑의교회 새일꾼반의 목표는 훈련생들이 자신의 삶에 도전을 받아 말씀 안에서 삶이 다듬어지는 동시에, 훈련자는 훈련생의 변화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며 훈련에 임함으로써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어 훈련자와 훈련생 모두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다. 새일꾼반은 성도로서 부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말씀을 통해 체계적으로 양육 받는 과정이다. 그래서 새일꾼반은 앞서 경험한 새생명반과 새가족반과는 달리 좀 더 개인적인 삶을 나누며 적용하게 된다. 이 과정은 훈련생의 실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16주 동안 진행된다. 특히 기존 신자라 할지라도 LA사랑의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의 입장에서는 LA사랑의교회의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다. 이런 시기에 기존 성도와의 일대일 만남을 통해 16주 동안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친분이 쌓이게 되어 교회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새일꾼반을 수료한 교인만이 '제자훈련'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제 3 절 LA사랑의교회 제자훈련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공생애 기간 제자들의 발굴과 육성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셨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LA사랑의교회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회의 에너지를 제자훈련에 집중시키고 있다.

#### 1. 제자훈련의 목적

예수님은 '안일한 신앙'보다 모험하는 인생으로서 '도전하는 신앙'을 기뻐하신다.<sup>74)</sup> 도전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지성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사고하고 분석하며 혁신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sup>75)</sup>

74) 이찬수, *보호하심* (서울: 규장, 2011), 53-56.

75) Gordon MacDonald,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Ordering Your Private World)*, 홍화옥 역 (서울: IVP, 2002), 169.

LA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교인들을 막연한 성도의 '무리'가 아닌,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데 있다. 즉,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Lordship)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Headship)과 그리스도의 '이끄심'(Leadership)을 철저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헌신된 제자'로 세워진다. 제자훈련은 일반 성경공부와는 다르게 삶의 총체적인 점검 및 개인적 성장을 목적으로 삼아 진행되기에 참된 제자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 훈련을 위한 철저한 '마음 자세'와 '시간의 우선순위'를 제자훈련에 할애해야 한다.

LA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목회자의 심정으로 함께 사역할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LA사랑의교회의 모든 동력에 시작인 소그룹 모임을 이끌어가는 다락방 순장(소그룹 모임 리더)을 세우게 된다. 훈련생은 제자훈련을 통해 훈련자(목회자)로부터 소그룹 안에서 양육을 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건강한 소그룹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험은 훈련생이 다락방 순장이 되었을 때 소그룹 리더로서 순원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배움이 된다. 순장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다락방 순원들이 바른 양육과 섬김을 받을 수 있고, 다락방이 하나 되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체험하게 된다.

## 2. 제자훈련의 실제

LA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사역이 진행된다. 제자훈련이 시작되면 교회의 외부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오직 제자훈련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제자훈련 방학 기간에 맞추어 부흥회 및 다양한 세미나를 열어 다음 제자훈련 기수를 준비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한다.

### 가. 제자훈련의 교육과정

제자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은 두 달 정도 걸린다. 그리고 제자훈련 교육은 총 32강의로 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중에 방학이 있기에, 결국 제자훈련은 1년 동안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 (1) 훈련생 선발하기

제자훈련 훈련생을 모집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을 모아 말씀으로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다. 어떤 훈련생이 선발되느냐에 따라 제자훈련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훈련생 선발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성도가 제자훈련을 받지 못하게 막는 동시에, 준비된 성도를 권면하여 훈련생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한다. 이 과정을 은혜롭게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목회자가 훈련생을 선발할 때 목회자가 품은 제자도에 대한 비전이 성도들의 가슴에 전달되어 성도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품고 스스로 훈련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이때 "하나님께서서는 똑똑한 사람보다 주어진 작은 일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sup>76)</sup>라는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회는 각 다락방을 인도하는 순장들은 물론 평신도 리더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의 유익함을 알리고 권면한다. 또한, 교회 주보, 게시판, 인터넷 사이트, 안내 책자 등으로 제자훈련을 통해 얻는 유익을 홍보한다.

LA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의 훈련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세례, 교회 등록일, 다락방 참석, 새일꾼반 수수료 등)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공평성을 지닌다. 그리고 목회자가 지원자 중에서 훈련생을 선택하기 전에 일대일 면담을 통해 여러 가지 질문들, 즉 "언제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었는가?", "하루에 말씀과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으며 앞으로 어떤 사역으로 섬기고 싶은가?", "제자훈련에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는가?", "배우자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는가?", "다락방 출석은 잘하고 있는가?",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참석, 과제물) 건강 상태인가?", "훈련받은 동안 가정의 일로 인해 방해 받을 환경이 존재하는가?", "교회 정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하루에 1~2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어 과제물을 할 수 있는가?", "직장 때문에 훈련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인터뷰를 함으로써 지원자의 영적, 지적, 환경적인 상황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인터뷰 후에는 지원한 성도들 가운데 가능하면 기도하는 성도, 긍정적인 성도, 상식이 통하는 성도, 그리고 시간적 헌신을 할 수 있는 성도를 제자훈련 훈련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6) 이찬수, *붙들어 주심* (서울: 규장, 2013), 130-135.

목회자는 지원자 중 탈락자가 발생할 때 그 탈락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목양을 해야 한다. 이때 목회자가 탈락자에게 전화로 행정적인 통보를 하기보다는 직접 일대일로 만나 지원자가 ‘왜 탈락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감성적인 접근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 후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더욱 친근하게 사랑으로 보살피 주며, 다른 사역 또는 다른 양육과정에 연결해 주는 것이 좋다.

## (2) 오리엔테이션

제자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훈련생들에게 제자훈련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자훈련에 선발된 훈련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은 제자훈련의 첫 이미지를 주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훈련생이 빠짐 없이 출석해야 한다. 훈련생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제자훈련 기간 중 훈련생(본인)을 위한 중보 기도자’를 정해 오는 것이다.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훈련자는 준비된 말씀을 짧게 선포한 후에 제자훈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다. 그리고 훈련생 각자가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하며 제자훈련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한다. 이때 정해진 시간 안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기 위해 자신의 소개가 간증이 되지 않도록 훈련자가 미리 주의를 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훈련자는 훈련생 개개인의 말을 경청한 후에 훈련생들의 목표에 대해 진정한 칭찬과 격려를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칭찬과 격려가 훈련생들에게는 훈련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자가 말한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함으로써 제자훈련이 말씀과 기도로 함께 진행됨을 처음부터 알려준다.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제자훈련 교재 세 권을 다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첫 번째 교재만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이는 한 번에 많은 분량의 내용을 주는 것보다 한 권씩 나눠 주며 차례대로 공부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각 권을 마쳤다.’는 성취감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제자훈련 암송 카드, 제자훈련 바인더, 제자훈련 카드, 하나님 앞에서 등을 나눠 준다. 또한, 제자훈련을 경험한 평신도가 쓴 필독

서,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를 미리 읽게 함으로써 훈련생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제자훈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과 간접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

오리엔테이션에는 첫 번째 모임 과제물을 알려주고 각 과제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한다. 매주 교재를 예습해 오되 교재의 한쪽 측면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다른 측면은 수업 중에 덧붙여 기록할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성구 암송은 ‘대주제, 소주제, 본문, 내용, 본문’ 순서로 외우도록 통일시켜 훈련생이 각 장 제목을 암기함으로써 배우는 과정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게 하며, 성경 읽기 표를 활용하여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성경 일독을 하게 한다. 또한, 주일설교 요약을 통해 예배 중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되, 훈련자에게 보이려고 주일설교 요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주일설교 요약의 목적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점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에 있다. 그리고 개인 간증문을 작성할 때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신앙고백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 원하는 것들’을 기록하여 첫 모임에 가져오게 함으로써 제자훈련 첫 모임부터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입학식과 수료식

LA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 입학식과 수료식을 통해 훈련을 시작하는 훈련생을 격려하며, 동시에 힘든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들을 격려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제자훈련 입학식과 수료식을 주일에 함으로써 단지 훈련생들만을 위함을 넘어 전 교회적인 행사로 치른다. 이는 전 성도들에게 제자훈련 입학식과 수료식을 통해 제자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LA사랑의교회는 배너와 순서지를 만들고, 졸업식 꽃과 수료증을 준비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만든다. 입학식에서는 바로 전 제자훈련 졸업자 대표자의 격려사와 제자훈련 선배들이 특송을 하게 함으로써 각 기수 간에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수료식에서는 수료자 중에서 간증자를 세워 제자훈련 중에 받은 은혜와 변화를 간증하게 함으로써 참석한 교인들에게 제자훈련이 주는 유익에 대한 은혜를 끼치게 한다. 또한, 제자훈련 기간에 촬영한 사진과 영상으로 만든 짧은 동영상은 보여줌으로써 수료자들에게는 평생 간직할 만한 좋은 추억이 되며, 참석자 중 이미 제자훈련을 졸업한 성도들에게는 제자도

를 향한 마음(초심)을 재확인해 주고, 아직 제자훈련에 동참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제자훈련에 대해 좋은 간접경험을 하게 하는 동시에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준다. 그리고 모든 행사 후에는 기념촬영을 하기에 정장을 입게 하며 온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만든다.

#### 나. 제자훈련 모임 시간 운영

LA사랑의교회 제자훈련 훈련생들 대부분이 바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매주 제자훈련으로 모임 때 3시간 내외로 마치는 것이 좋다. 훈련생들이 다음날 출근해서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 (1) 아이스 브레이크

제자훈련 훈련생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바로 훈련장으로 오기에 서로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사를 간단하게 준비한다. 전체 회비를 분기별로 걷고 식사 메뉴는 훈련하기 바로 전날 카톡으로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여 정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는 훈련생이 섭긴다. 그리고 훈련생들이 상의하여 지각 및 결석비를 내게 함으로써 훈련시간을 준수하게 한다. 제자훈련은 평일 저녁 7시에 모여 7시 30분까지 식사를 하며 한 주간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눔으로써 퇴근 시간이 서로 다른 점을 해결한다. 이때 훈련자는 같이 교제 나누고 식사하며 훈련생 개개인의 표정과 말투를 세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관찰하여 훈련생의 감정적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훈련생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상황이 매주 다르기에 훈련생들의 상태를 매주 파악하지 않고 안일하게 제자훈련을 이끌다 보면 사소한 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훈련생의 현재 상태를 바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훈련자의 사소한 언행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훈련생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전체적인 제자훈련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훈련자는 매주 제자훈련 현장에서 훈련생 개개인의 마음을 읽고 그 상태에 적합하게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 (2) 찬양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훈련생의 특별기도 제목을 받고, 저녁 7시 35분부터 7시 50분까지 매주 주제에 적합한 은혜로운 찬양을 15분간 뜨겁게 부른다. 훈련생 가운데 찬양의 은사가 있는 자를 통해 찬양을 준비하게 한다. 이때 선곡은 미리 훈련자와 조율하게 함으로써 공부할 각 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찬양을 부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임을 훈련생들에게 인식시키고 매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훈련자가 훈련생들의 마음가짐을 이끌어야 한다. '찬양의 시간'에 훈련자가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찬양의 시간'은 단순한 준비 찬양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훈련자 자신이 찬양 시간이 준비 찬양이 아닌 제자훈련의 핵심 시간처럼 여겨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 또한, 매번 기수별로 훈련생들과 상의하여 주제곡을 정해 제자훈련 시간 때마다 주제곡을 부르는 것도 훈련생들 서로에게 일체감과 소속감을 주게 되며 일반 생활 속에서도 주제곡을 찬양하게 되는 유익이 있다.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 한 주간 세상에서 바쁘게 지내는 동안 희석된 '제자도의 삶'에 대한 마음 자세를 추스르며 제자훈련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 (3) 기도

준비한 찬양의 마지막 곡이 끝나 갈 때, 그날 제자훈련 모임을 위해 10여 분간 합심으로 기도한 후 훈련생이 매주 돌아가며 마무리 기도를 한다. 합심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LA사랑의교회와 세계 교회 및 선교지를 위한 기도, 담임목사와 부목사를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훈련을 위한 기도로 '제자훈련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한 기도, 훈련생들 서로를 위한 기도, 훈련자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기도, 그리고 그 주간에 있는 특별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써 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한다. 훈련자가 기도 시간에 어떻게 모범이 되어 기도를 인도해 나아가느냐에 따라 훈련생들이 기도에 임하는 자세와 질이 확연히 바뀌기에 훈련자가 온 힘을 다해 기도에 임해야 한다.

#### (4) 과제물 점검

기도 후에는 한 주간의 과제물 점검을 15분 정도 하게 된다. 과제물 점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훈련생들이 제자훈련 장소에 도착하면 준비된 한 테이블 위에 과제물을 종류별로 제출하게 한다. 제자훈련이 시작된 1~3주는 철저하게 과제물 점검을 하여 훈련생들이 요령을 피우지 않도록 과제물에 대해 강한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과제물 중 ‘성구 암송’과 ‘생활 숙제’와 ‘QT’는 집중적으로 매번 점검하는 반면, 다른 과제물들은 돌아가면서 점검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여 말씀훈련 시간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과제물은 훈련 당일 3일 전에 총무가 금주 과제물을 훈련생들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훈련생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과제물을 잘 준비하게 한다.

#### (5) 말씀훈련

과제물을 점검한 후, 저녁 8시 20분부터 9시 50분까지 한 시간 반 동안 교재를 가지고 말씀훈련이 진행된다. 말씀훈련 시간은 제자훈련의 목적인 훈련생들의 삶의 변화와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이다. 말씀훈련 중 진정한 나눔은 자기 삶의 개방으로부터 시작되기에 훈련자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개방해야 한다. 즉, 말씀훈련을 하는 가운데 훈련자가 먼저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실수 및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고민을 훈련생들에게 진솔하게 공개함으로써 훈련생들도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90분 안에 교재의 모든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힘들다. 전체를 다루다 보면 귀납적 성경공부가 아닌 연역적 성경공부가 될 수 있기에 훈련자는 매주 말씀훈련 주제마다 핵심 포인트를 정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때 훈련자는 반드시 귀납적 접근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제자훈련 교재는 관찰질문, 해석질문, 느낌질문, 적용질문의 네 가지 유형으로 질문들이 구성되어 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 훈련자는 ‘적용과 결단’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적용질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인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단지 일반적 적용이나 감정의 나눔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훈련자는 제자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훈련생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 어느 문항을 어떤 훈련생에게 질문할 것인지를 잠정적으로 정하

고 훈련에 임해야 더욱 효율적인 말씀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때론 말씀훈련 중 훈련자가 준비한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상반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훈련자는 본인이 준비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했을 때 훈련자는 성령님 안에서 훈련생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를 위해 훈련자는 늘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제자훈련에 임해야 한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엉뚱하게 대답하는 훈련생에 대해 훈련자가 핀잔을 주기 보다는 그의 창조적인 생각의 발상을 인정해 주는 동시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다른 훈련생에게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엉뚱한 대답을 한 훈련생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가운데 말씀훈련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말씀훈련 중에 훈련자가 정답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에 선불리 훈련생의 답변을 무시하고 정답을 가르쳐 주게 되면, 그 훈련생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어 제자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훈련자에게는 훈련생의 입장에서 듣는 '공감적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12명의 다양한 제자를 끝까지 품고 함께 하셨듯이 제자훈련을 시키는 훈련자는 자신과 성품이 다른 훈련생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감싸고 돌봐야 한다.

#### (6) 통성기도

말씀훈련 시간을 통해 적용하고 결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는 주님의 말씀처럼 훈련생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훈련자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특히 제자훈련의 마무리인 통성기도 시간은 그 날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도전과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변화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 다. 제자훈련의 교재

LA사랑의교회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만든 세 권(제자훈련의 터다지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작은 예수가 되라)의 교재를 사용한다.

##### (1)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제1권, '제자훈련의 터다지기'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자훈련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훈련자(목회자)와 훈련생 그리고 훈련생들 간에 서로를 알아가며 신뢰성을 쌓게 된다. 훈련자는 제자훈련 1권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인도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훈련생들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말씀 앞에 서는 습관, 즉 QT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두 번째, 훈련생들이 앞으로 훈련을 받게 될 1년을 위해 그리고 평생 신앙의 동지가 될 훈련생들 간의 친밀감이 쌓이도록 인도한다. 세 번째, 훈련생들이 훈련자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자가 훈련생들을 위해 중보기도로 모범을 보이며 인도한다. 이와 같은 중보기도는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훈련생들이 훈련자를 신뢰하게 하는 영적인 도구가 되며, 제자훈련 동안 훈련생들이 훈련자를 신뢰하게 된 만큼 훈련자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 끝으로 훈련생들 자신이 제자훈련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정체성을 갖도록 인도 한다. 끝으로 훈련생들 자신이 제자훈련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정체성을 갖도록 인도 한다.

훈련생들이 제자훈련에 시간과 노력을 쏟았을 때 얻어지는 열매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훈련 도중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게 된다. 특히 제자훈련 1권에서는 훈련생들이 '경건의 시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를 통해 말씀과 기도생활을 바르게 배워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 기도와 말씀이 체질화 되게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런 기도생활과 말씀생활은 훈련생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전부가 된다.

하지만 제자훈련 1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 수업시간에 있어야 하는 '엄격함'이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자훈련을 처음 접하는 훈련생은 훈련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기에 '훈련'으로서 갖추어야 할 질서

와 과제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때 훈련생들이 최선을 다해 과제물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리고 말씀훈련 교재를 가지고 진행함으로써 예습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며, 성경구절 암송을 통해 동질감을 심어준다. 이를 위해 초반에는 훈련생 중 한 명이라도 예습 및 암송을 해 오지 않았을 때는 수업을 진행하기보다 그 시간에 못해온 예습 및 암송을 하게 하여 훈련생 모두가 한 몸이 된 지체임을 깨닫고 다른 훈련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훈련생들 스스로 충실히 과제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매주 서로 돌아가며 짝을 정해 수업시간에 짝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며, 주 중에 정해진 짝에게 연락하고 식사하기 등의 생활속제를 내줌으로써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한다.

## (2)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제2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훈련생 자신에 대한 구원의 이해와 확신을 토대로 교리적인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훈련생 자신의 구원 사건임을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된다.<sup>77)</sup> 그리고 훈련생들은 제자훈련 2권을 통해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교리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근거하여 다양한 교리를 배우게 된다. 이때 교리를 다루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연역법적 성경공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훈련자는 늘 인식하고, 귀납법적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훈련자는 제자훈련 2권을 진행할 때 각 장에서 배우는 교리가 훈련생들의 실제 생활 속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제자훈련 1권을 수업하면서 친해진 훈련생들이 제자훈련 2권을 공부하는 동안 훈련생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긴장감이 낮아져 오히려 서로의 단점을 교리적인 측면으로 비난함으로써 갈등을 겪을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훈련생들 각자가 지닌 기질, 학업 성취도, 경제적인 차이, 성격 차이, 대화 스타일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이 제자훈련 모임 가운데 생길 여지가 많다. 따라서 훈련자는 제자훈련 2권을 이끌어 가면서 훈련생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7)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31-51.

이를 위해 훈련자는 훈련생들에게 '제자훈련은 각자의 잘못된 부분이 다듬어져 나가는 과정'임을 주지시킴으로써 훈련 가운데 오는 '갈등'이 제자훈련의 정상적인 한 부분임을 알고 훈련자와 훈련생 모두 갈등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훈련자가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훈련생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며, 자신을 자학하게 되고, 자신과 다른 측면을 소유한 훈련생을 배척하게 되어 제자훈련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몸소 배우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러한 경험은 제자훈련을 마친 후에 다락방 순장 또는 사역팀 리더로서 순원들과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한다. 결국, 갈등의 해결은 상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상대방을 품게 될 때 갈등이 해결된다는 참된 지혜를 배우게 된다. 하지만 제자훈련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훈련자가 지혜롭게 윤희유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 훈련생들이 마음의 깊은 골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도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훈련자는 제자훈련 2권을 진행해 나갈 때 가능한 한 갈등을 표면화시키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인도가 필요하다. 특히 훈련자는 교리문제를 다룰 때 훈련생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도록 교리의 내용을 이끌고, 훈련생들이 제자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그 교리를 실천하도록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기등을 보고 자신을 고치기 위해 힘쓰는 훈련생이 되도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제자훈련이 훈련자의 미숙함으로 인해 오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자도 사람인지라 훈련생들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드는 훈련생과 그렇지 못한 훈련생으로 자연스럽게 나뉘게 된다. 이때 훈련자가 마음에 드는 훈련생만을 편애하게 되면 그것이 불화의 씨앗이 되어 큰 갈등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훈련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파는 가룟 유다까지 성찬에 초대하여 그의 발을 씻으신 그 사랑을 본받아 모든 훈련생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 (3) 작은 예수가 되라

제3권, ‘작은 예수가 되라’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훈련생의 실제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헌신과 결단을 촉구하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sup>78)</sup>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제자훈련 2권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가운데 훈련생들은 이제 서로에 대해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싹트게 된다. 훈련자는 이런 분위기를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영적인 관계'로 맺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훈련자는 제자훈련 3권이 진행되는 동안 훈련생들 각자의 삶의 영역을 구체적인 말씀으로 점검하여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는 '변화의 과정'에 중점을 둔다. 이 과정을 통해 훈련생들은 말씀의 칼로 각자 수술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청지기적 삶을 살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훈련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훈련자는 제자훈련 3권을 인도하면서 훈련생 개개인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전부인 기도생활과 말씀생활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갈수록 훈련생들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으로 'D형 QT'를 하도록 인도해야 그들이 제자훈련을 수료하고도 일상적인 삶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이면 훈련생들 각자가 훈련을 통해 얻은 것과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 이때 훈련자는 훈련 과정에서 뒤쳐진 훈련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과의 씨름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훈련이 끝나갈수록 훈련자는 훈련생의 생각, 즉 제자훈련 과정 중에서 공부한 세 권의 책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는 ‘착각’을 깨트려 주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겨우 첫발을 내디뎠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훈련이 하나의 훈장이 되어 오히려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것보다 못한 영적 교만에 빠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제자훈련 3권이 끝나갈 무렵

78)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62-165.

에는 말씀사역과 주님을 더욱 닮는 데 필요한 '사역훈련'을 소개하여 힘들지만 보람 있게 제자훈련을 함께 받은 지체로서 사역훈련에도 모두 함께 참여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 라. 제자훈련의 연속인 사역훈련

제자훈련 과정을 경험한 훈련생들은 자신의 인격과 삶이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은 훈련생은 이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양질의 평신도 동역자로 세워졌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역량이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LA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 과정을 졸업한 훈련생들에게 '사역훈련'을 통해 다른 지체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게 훈련을 하고 있다.

##### (1) 사역훈련의 목적

제자훈련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이제 목회자와의 협력사역으로 '다락방'(소그룹)을 맡아 섬기거나 다양한 '교회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이때 제자훈련 졸업생들의 인격과 삶의 변화의 정도에 따라 각자 맡은 소그룹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성경 말씀에 대한 단순한 지식적 습득이 아닌 삶의 구체적 변화를 경험한 성도만이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끌어내는 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과정이 '사역훈련'이다. 제자훈련이 추구하는 목표가 훈련생들의 신앙인격의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에 있다면, 사역훈련의 목적은 삶이 변화된 졸업생들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평신도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을 고취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2) 사역훈련의 실제

사역훈련은 제자훈련을 졸업한 성도가 지원할 수 있다. 제자훈련을 시키는 훈련자는 제자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훈련생 중 다락방을 맡아 섬길 수 있는 성도, 또는 교회의 부서 사역을 맡아 섬길 수 있는 성도에게 사역훈련을 권면하여 동참시킨다.

LA사랑의교회 사역훈련은 교회차원에서 제자훈련과 함께 입학식과 수료식을 같이 한다. 사역훈련 교재는 총 세 권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교재, ‘성령, 새 생활의 열쇠’는 6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자훈련에서 중요하게 다룬 구원에 대한 구체적 물음인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점검을 다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훈련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재확인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확신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근거로 보완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기초 터다지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사역훈련을 하는 동안 훈련생들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게 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된다. 이 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법정적 개념'의 측면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관계론적 개념'의 측면에서 균형을 잡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sup>79)</sup>

두 번째 교재,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관을 토대로 평신도의 자아 정체성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는 훈련생은 미래의 교회 리더로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해야 하는지(예배, 훈련, 증거), 그리고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지(전적 위탁자, 증인, 종)를 익히게 된다. 그 결과 잘못된 평신도 자아상을 바로잡아 평신도가 교회에서 주체가 되어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생들의 교회관과 신앙생활 태도에 도전을 준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올바른 교회관과 제자도를 익히게 된 훈련생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은사에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사역하게 된다.

마지막 교재는 10장으로 구성된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이다. 이 교재는 평신도가 사역하는 환경이 대부분 소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소그룹이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교재는 사역훈련을 마친 평신도 리더가 주변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섬기기 위한 과정으로써 소그룹 성경 공부를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실제 인도 방법인 '귀납적 성경공부의 실제'(관찰, 해석, 적용)를 다루게 된다. 특히 LA사랑의교회 다락방을 섬기게 될 예비 순장으로서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사역훈련 3권을 배울 때는 훈련생이 직접 소그

79)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64-167.

룹 인도자가 되어 소그룹을 인도하는 실제 경험을 하게 한다. 사역훈련 훈련자로서 사역훈련 3권을 마무리할 때는 훈련생들이 가지고 있는 배움에 대한 우월감을 철저히 내려놓도록 인도한다. 만일 훈련생이 사역훈련을 공부했다는 자만심을 지니고 졸업장을 갖게 될 경우 오히려 교회에 피해를 주는 비판자 리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련자는 사역훈련의 진정한 수료증이 바로 섬김의 장소, 낮아짐의 장소에 훈련생의 몸과 마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히 섬길 때 그 장소가 바로 사역훈련의 졸업장임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훈련받은 성도는 반드시 사역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처럼 훈련만 받고 교회 사역 현장에서 섬기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는 비판의식이 높아져 오히려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훈련받은 성도들에게 적합한 사역의 자리를 찾아 사역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 3. 제자훈련의 결과

LA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매우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생겼지만 동시에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생기게 되었다.

#### 가. 순기능

LA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을 실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그 열매로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 (1) 생활의 변화와 인격의 성숙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생활숙제를 통해 훈련생들의 실제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다. 훈련생 중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무뚝뚝한 남편은 ‘아내가 하는 집 안 청소 및 아이들과 놀아주기’ 등의 생활숙제를 통해 더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편이 되었다. 그리고 늘 불평불만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던 아내도 ‘남편과 자녀들이 싫어하는 잔소리를 줄이고 칭찬과 격려하기’의 생활숙제를 통해 부부갈등으로 힘들어하던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생활을 주일에만 하던 훈련생이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습관화되어 훈련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거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다. 또한, 그동안 가정과 이웃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음주 문제, 도박 문제, 이성 문제 등이 해결되었으며, 제자훈련을 통해 훈련생들 개개인의 인격과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성숙하게 되었다.

훈련자로서 훈련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체질화시키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훈련생들의 인격이 서서히 성숙하여짐을 목격했다. 제자훈련 졸업식 날 졸업자의 간증을 통해 늘 자기 자신만을 우선시하여 생각하던 이기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교회를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품게 되었음을 듣게 되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진정한 행복이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훈련생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변화되거나 성숙한 것은 아니다. 훈련생으로서의 졸업은 단지 이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성숙을 향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의미임을 훈련자와 훈련생 모두가 알고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맑은 물이 다시 흙탕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훈련자와 훈련생 모두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부터 변질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2).

## (2) 바른 교회관과 사도관의 확립

훈련생들이 제자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안도감'에 머물러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sup>80)</sup>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그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겠노라!"(요 20:21; 엡 2:20)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교훈을 계승하고자 훈련받는 훈련생들을 통해 주님의 대사명인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게 하신다.<sup>81)</sup> 그래서 훈련생들은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삶을 위탁하는 생활을 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80)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71-78.

81)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89-96.

중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관과 사도관으로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에게 오는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 1:29). 더 나아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게 되었으며 첫 단추를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교회가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3) 목회 동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자 증가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훈련생들 간에 관계는 물론 훈련생과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져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끈끈한 긍정적인 관계성은 교회 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주변 사람을 더 넓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즉 자신만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동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정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개척교회인 LA사랑의교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목회자와 같은 비전을 품게 된 훈련생들이 자발적으로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나감으로써 교회가 한 비전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품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4)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

제자훈련을 수료한 훈련생들은 훈련을 받기 전에 수동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던 옛 모습에서 벗어나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은사대로 교회사역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LA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을 LMD(평신도 사역 개발원)을 통해 각자에 은사에 맞게 예배(방송팀, 사진팀, 예배안내팀, 통역팀, 찬양대), 교제(새가족환영팀, 바나바팀, 새가족편지팀, 주방팀), 교육부, 주차팀을 몇

개월 씩 돌아가며 섬길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한 후 자신의 적성과 팀의 평가를 종합하여 앞으로 섬길 사역을 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역을 하게 됨으로써 사역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기질과 성향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줄이게 되었다.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습득한 섬김과 헌신과 순종이 사역의 현장에서 부작용을 현저히 줄이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주일예배에만 참석하던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다양한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각 부서가 평신도들로 인해 활발하게 사역이 전개되었으며 아직 제자훈련을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제자훈련에 대한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제자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 부서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 시간에 늘 쫓기던 목회자들의 짐을 함께 짊어졌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 목양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 나. 역기능

LA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을 실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지만, 약간의 부정적인 환경도 조성되었다. 교회가 '영적 불감증'을 갖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적 결벽증'을 내세우는 것도 위험하다. 교회는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며,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말고 용납하며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sup>82)</sup>

##### (1) 성도들 사이에 우열이 생김

LA사랑의교회는 새가족반을 이수한 성도만이 새일꾼반에 들어갈 수 있고, 새일꾼반을 수료한 성도만이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제자훈련을 졸업한 성도만이 사역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해진 커리큘럼(curriculum)에 의해 철저하게 양육과 훈련을 일률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훈련생들에게 각 과정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훈련을 받은 성도가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교회 문화가 생겨났다. 또한, 제자훈련을

82) 이찬수, *일어나라*(서울: 규장, 2011), 96-99.

받은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은 훈련을 받지 못한 성도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처럼 획일화된 관리자 위주의 시스템 때문에 결국 교회를 학원으로 전락시켜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제한시켰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훈련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와 훈련을 받은 성도 간에 미묘한 우열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로부터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제자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훈련자가 훈련생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훈련생들이 겪는 고통과 갈등 문제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맞춤형 훈련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제자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적합한 대안도 준비되어야 한다.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은 물론 제자훈련을 마친 후에도 졸업생들은 기수별로 자주 모임을 하게 된다. 1년간 함께 웃고 울었던 지체이기에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아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기수들끼리 교제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같은 기수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정작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지체들과의 교제가 소홀해지게 된다. 그리고 제자훈련 동기생들 모임이 강화되다 보면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동화되기 힘든 틀을 느끼게 된다. 물론 이것이 도전되어 제자훈련을 받으면 좋지만, 역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따라서 훈련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훈련생들에게 졸업 전에 미리 주지시켜서 제자훈련을 같이 받은 동기생들이 이런 상황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 나가도록 하면, 이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2) 훈련자에 따른 열매의 차이

제자훈련을 이끌어가는 훈련자(목회자)의 인품과 영성에 따라 훈련생들의 생활 변화와 인격적 성숙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것은 진리를 전달하는 목회자의 중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제자훈련이 사람을 의존하게 됨을 뜻한다. 더 나아가 훈련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제자훈련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칫 훈련자인 목회자에게 의존하여 목회자의 삶을 신앙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훈련생들이 훈련자를 바라보지 않도록 훈련자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며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운동팀도 어떤 감독과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게 나타나듯이 제자훈련은 훈련자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훈련자인 목회자는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신을 먼저 준비시켜야 한다. 그리고 제자훈련은 영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기에 훈련생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며, 훈련자가 먼저 말씀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처럼 제자훈련은 훈련자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자가 만나고 경험하고 닦기 위해 노력하는 그 예수님을 말씀과 자신의 삶으로 소개하며 훈련생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따라서 훈련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하며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sup>83)</sup>

### (3) 당장 열매를 보고 싶은 조급함

성도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땀과 희생과 열정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개척교회인 LA사랑의교회는 남가주사랑의교회의 기본 틀, 즉 평신도들이 사역에 동참하는 문화를 기초로 하여 교회가 개척되었기에 부서별로 많은 일손이 필요했다. 그리고 LA사랑의교회의 개척 초기에 많은 새가족이 방문하여 교회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평신도 리더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급성장을 하는 상황 속에서 LA사랑의교회는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제자훈련 과정에 있는 평신도까지 순장으로 섬기게 하였다. 즉,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 과정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평신도 리더를 순장으로 세워 다락방을 섬기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순장이 된 훈련생은 처음에는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지만 결국 다락방 인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중압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다. 이 일은 급히 순장된 제자훈련 훈련생과 그가 담당하여 섬긴 다락방 구성원에게도 상처가 되었다. 이처럼 교회 사역은 결국 '어떠한 평신도

83)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96-203.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가 양적으로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제자훈련을 통해 자신의 내적 성장과 함께 사역훈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평신도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먼저 습득한 후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본인과 교회에 진정한 유익이 된다.

#### (4) 기도 사역이 상대적으로 약해짐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말씀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도 사역이 약해졌다.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앙 성숙을 경험한 LA사랑의교회 성도들은 지식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말씀훈련을 받은 것에 비해 현실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는 LA사랑의교회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 말씀을 통해 자신을 진단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가꾸었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측면은 말씀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았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주님께서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 하셨다(막 9:29).

#### 제 4 절 요약 및 결론

제자훈련이 추구하는 목표는 훈련생들의 '신앙인격의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에 있다. 오늘날 복음과 성도들의 삶에 괴리가 생긴 이유 중 하나는 말로 전하는 복음 증거와 행위 전도 사이에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의미하는 복음 증거가 될 수 없기에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지만 단지 말로 지식적인 복음만 전하고 그에 따른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성도는 말의 전도와 행위의 전도 중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결국,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도록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다.<sup>84)</sup>

LA사랑의교회는 제자도에 근거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84)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56-161.

제자로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교회를 개척하여 제자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자도의 중요한 측면으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자훈련을 실행하고 있다. 제자훈련을 교회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제자훈련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필요성과 함께 제자훈련이 나아갈 방향과 제자훈련을 통해 얻게 될 열매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의 비전이 성도들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비전을 나누어야 한다.<sup>85)</sup>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양육 없이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생이 없는 동시에 제자훈련을 받은 평신도 리더가 없이는 교회에서 바른 양육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이처럼 양육과 제자훈련은 상호 보완해 주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LA사랑의교회는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에게 먼저 양육과정을 받게 함으로써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기본 틀을 갖추게 한다. 그 결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전심전력을 다 해 힘써야 하는 제자훈련을 많은 성도가 좋은 결과로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육과 훈련은 동전의 양면처럼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과정이다.

LA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성숙함이 나타났으며,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구원관과 사도관이 세워졌고, 목회자와 같은 뜻을 품은 평신도 리더들이 배출되었으며, 성도들이 섬기는 사역의 장이 다양하게 펼쳐졌다는 긍정적인 열매를 얻게 되었다. 반면에 LA사랑의교회는 교회의 많은 역량을 제자훈련에 집중함으로써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제자훈련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제자훈련 동기생들만의 돈독한 애정 공동체가 형성됨으로써 다른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연약한 모습이 도출되었다. 이처럼 LA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지상교회로서의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전체적인 교회로 볼 때 성도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고자 노력하는 열정이 더 크게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제자훈련이 LA사랑의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성숙과 예수님을 닮아 가는 데 크게 기여 했다.

85)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205.

## 제 4 장

### 은혜한인교회의 선교사역

3장에서는 LA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이 교회에 끼친 영향력을 2장에서 살펴본 제자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선교사역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은혜한인교회의 선교사역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제자도 위에 세워지는 바른 교회 상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먼저 은혜한인교회에 대한 목회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은혜한인교회의 지역적 특성과 교회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은혜한인교회가 선교사역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양육과정인 '결신 과정', '제자훈련 과정', '사역 훈련 과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은혜한인교회가 선교사역을 위해 세운 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은혜 국제 선교회)의 선교현황 및 선교의 목적과 실제 선교훈련 과정을 목회적인 차원에서 개괄하고자 한다. 그 후 은혜한인교회가 그동안 열정적으로 사역한 선교사역을 통해 얻게 된 열매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하고자 한다.

#### 제 1 절 은혜한인교회의 목회적 이해

은혜한인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다. 1982년 교회가 개척된 다음 해인 1983년 예산 \$326,360의 50%를 선교비로 확정했고, 1984년 3월에는 이재환 목사를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로 파송했으며, 1985년 전체 예산의 50%인 \$750,000을 선교비로 잡았다. 그리고 개척한 지 5년 만에 선교비 \$1,000,000시대를 열었으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해서 선교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그 당시 환율로 보면 개척한 교회로서 선교를 위해 은혜한인교회가 최선을 다해 선교비를 감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6년에는 은혜한인교회의 평신도였던 김태원 성도 부부를 유럽 선교사(평신도 선

교사)로 최초로 파송했다.

### 1. 은혜한인교회 지역적 특성

은혜한인교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한인타운에서 동남쪽으로 20여 마일 떨어져 있는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타운이라 불리는 플러턴(Fullerton)에 있다.

#### 가. 지리적 특성

LA 카운티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이고 플러턴이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의 인구는 약 300만 명이다. 22.36스퀘어 마일 넓이의 플러턴은 2014년을 기준으로 15만여 명의 인구 가운데 아시아계 인구가 28% 살고 있다. 플러턴은 1904년에 독립 시로 출발하여 자체 경찰국도 소유하고 있다. 주거지로 개발이 시작된 플러턴 주변에는 부에나 파크(Buena Park), 라미라다(La Mirada), 세리토스(Cerritos), 브레아(Brea), 애너하임(Anaheim), 가든 그로브(Garden Grove) 시가 있고 여기까지 한인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플러턴이 좋은 학군으로 알려지면서 한인 및 아시아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플러턴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2000년에 9,093명에서 2010년에 15,544명으로 71%가 증가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플러턴 주변에 있는 부에나 파크는 4,965명에서 7,806명으로 57%로 증가했으며, 라미라다는 2,306명에서 3,671명으로 59%로 증가했고, 브레아는 728명에서 2,592명으로 256%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플러턴 주변에는 대형 한인마트와 대형 한인교회들이 생겨났으며 한인들의 유동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sup>86)</sup>

#### 나. 문화적 상황

1982년에 플러턴 시에서 개척된 은혜한인교회는 다른 시를 거쳐 2000년 8월에 부지 26에이커에 달하는 당시 토마토케첩 제조회사인 '헌츠'의 플러턴 본사 건물을 매입한 후 CUP를 받아 2003년 11월에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그 후 은혜한인교회는 그동안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창고 건물을 2008년에 헐고 188,000스퀘어 피트

86) "제 2의 한인타운 부에나 파, 플러턴," *미주한국일보* (2015년 9월 3일). 2016년 3월 인용. Online: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50903/939344>

면적에 본당 2,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성전을 2011년에 완공함으로써 1,3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총 건평 300,000스퀘어 피트가 넘는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은혜한인교회에서 1.5마일 거리에 위치한 남가주사랑의교회는 1999년에 10.8에이커 부지에 건평 110,000스퀘어 피트, 본당 수용인원 2,000여 명, 주차 8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새 성전을 완공했다. 또한, 은혜한인교회에서 3.8마일 거리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는 2003년 5월에 2.4에이커 부지에 건평 44,000스퀘어 피트 규모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당과 180여 대의 주차장 규모를 갖춘 새 성전을 완공했다.<sup>87)</sup> 이 외에도 플러턴 주변에는 많은 중소형 한인교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플러턴 주변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자신과 맞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 2. 은혜한인교회 현황

선교사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은혜한인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교회 시스템 위에 세워진 은혜한인교회는 28개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매주 주일 출석 교인은 4,500여 명이다.

### 가. 교회 개척 배경 및 역사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김광신 목사는 도미하여 성공한 사업가로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42세 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변화를 받았다. 44세가 되던 1979년에 탈봇신학교(Talbot Theological Seminary)에 입학하여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마치고 전도사로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1982년 5월에 플러턴에서 은혜한인교회를 개척하였다. 은혜한인교회는 개척 후 5년 만에 2,0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급성장하였다. 은혜한인교회는 플러턴(Fullerton)에서 ‘개척의 시대’(1982~1984), 놀워크(Norwalk)에서 ‘부흥의 시대’(1984~1996), 애너하임에 있던 멜로디랜드(Melodyland)에서 ‘변화의 시대’(1996~2002), 플러턴 이스트사이드 교회

87) "플러턴 일대 대형교회 속속," *미주한국일보* (2003년 10월 21일). 2016년 3월 인용. Online: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6624>.

에서 예배드리는 ‘과정의 시대’(2002~2003)를 겪는 동안에 자체 성전을 소유하지 않고 선교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2003년 말에, 즉 개척한 지 21년 만에 자체성전을 소유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 후 2004년 9월에 김광신 목사는 은퇴하고 원로목사가 되어 한국으로 가서 서울은혜교회와 선교사역훈련원을 세워 지금까지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한기홍 목사는 유학시절에 은혜한인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부목사로 사역(1989~1992)하다가 샌디에이고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섬겼으며(1992~2004), 2004년 9월에 은혜한인교회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섬기고 있다.

#### 나. 미션

은혜한인교회는 주님의 머리 되심과 제자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4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미션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 두 번째 미션은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이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 세 번째 미션은 '유기체적인 교회'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12~27). 마지막 미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마 7:24).

#### 다. 목회 방향

은혜한인교회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양육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3대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첫째, 행복한 교회이다. 은혜한인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들에게 죄의 짐, 인생의 병든 짐, 생활의 짐과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 주기 위한 목

양을 하고 있다. 이때 목회의 기본 정신은 어느 사람도 타인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없고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쉼을 줄 수 있음에 주안점을 두고 사역한다. 따라서 은혜한인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그러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

둘째, 상급 받게 하는 교회이다. 은혜한인교회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 상급 받는 사람이 되도록 목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성공이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므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역과 섬김의 장을 많이 열어 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셋째, 세계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이다. 은혜한인교회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는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시대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듯이 시대 말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로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에 세계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해 깨어있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서 세계선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제 2 절 은혜한인교회의 양육

은혜한인교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도들을 '결신 과정', '제자훈련 과정', '사역훈련 과정'으로 나누어 양육을 시키고 있다. LA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만든 교재를 바탕으로 성도들이 2년간 말씀 안에서 삶의 변화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리더를 세워가는 의미에서의 제자훈련이다. 이에 반해 은혜한인교회의 제자훈련 과정과 사역훈련 과정은 성도마다 기질과 취향이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

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양육프로그램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뜻하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은혜한인교회에서는 '과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신 과정', '제자훈련 과정', '사역훈련 과정' 안에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양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다.<sup>88)</sup>

### 1. 결신 과정

은혜한인교회는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들(불신자 및 기존신자)에게 '결신 과정'을 통해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기 위해 그레이스 인카운터(Grace Encounter)를 8주간 시행하고 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는 은혜한인교회 각 그룹이 주축이 되어 맡아 섬기는 과정으로 매년 1~2회씩 그룹 차원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GE는 준비된 평신도들이 강의하며 주말 수양회 때 목회자가 강의 및 기도회를 인도한다.

### 2. 제자훈련 과정

은혜한인교회의 제자훈련 과정은 신앙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과정이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 5:12~14).

#### 가. 제자훈련 과정의 목적

은혜한인교회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및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자훈련 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88) Leroy Eims,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조성동 역 (서울: 네비게이토, 2008), 69-72.

## 나. 제자훈련 과정의 실제

제자훈련 과정은 7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목이다.

### (1) 일대일 제자 양육(16주)

일대일 제자 양육은 단순한 성경공부가 아니라 16주 동안 동성(同性)인 훈련자와 훈련생이 일대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성도로서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동시에 영적으로 도와주는 양육과정이다.

### (2) 신, 구약개론(26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즉 구약과 신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의 시대와 배경, 그리고 인물들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는 양육과정이다.

### (3) GTD(Grace Tres Dias)

GTD는 3박 4일 동안 산장에서 갖는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귀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양육과정이다.

### (4) GF(Grace Freedom)

GF는 은혜기도원에서 2박 3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쓴 뿌리를 치유 받고, 죄와 세상의 것과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람들과 맺힌 매듭을 풀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과정이다.

### (5) 율법과 복음(8주)

율법과 복음은 김광신 목사가 은혜한인교회 초창기 때 만든 성경공부로 은혜한

인교회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심령을 깨우고 도전을 주었던 성경공부이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공부하면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양육과정이다.

#### (6) 은사발견 세미나(8주)

은사발견 세미나는 각 성도가 지닌 열정 및 은사와 스타일을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하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청지기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과정이다.

#### (7) 성경적 재정교실(8주)

성경적 재정교실은 성도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재정과 관련된 분야(개인 재정 보고서, 부채 목록 작성 및 부채 상환 계획 세우기, 예산 세우기, 은행 구좌 관리, 유산 계획 등)에서 성경이 말하는 재정 관리의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이 물질과 시간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양육과정이다.

### 3. 사역훈련 과정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여 다양한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7). 은혜한인교회는 제자훈련 과정과 사역훈련 과정의 순서에 상관없이 성도들이 자신의 형편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가. 사역훈련 과정의 목적

은혜한인교회는 성도 자신이 먼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동시에 평신도 지도자로서 올바른 지정의(知情意)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역훈련 과정을 하고 있다.

## 나. 사역훈련 과정의 실제

사역훈련 과정은 교회의 리더로서 필히 갖추어야 할 분야로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부목자 세미나(8주)

부목자 세미나는 담임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과정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인 가정교회 목자로서 목원들을 어떻게 바르게 섬기고 가정교회를 인도할지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성도들이 담임목사로 부터 목자의 마음에 대한 비전을 공유 받게 되는 양육과정이다.

### (2) 지도자 자질론(8주)

지도자 자질론은 은혜한인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 교회 및 세상 속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관해 담임목사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다. 특히 지도자 자질론을 통해 은혜한인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선교사역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고 그 사역을 위해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양육과정이다.

### (3) 전도폭발(14주)

1984년부터 은혜한인교회에서 시작된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은 평신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 점검은 물론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 전도의 현장에 임하게 함으로써 복음 사역의 일을 증가시키는 은혜한인교회의 대표적인 사역이다. 전도폭발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10번의 실제 복음증거 실습은 성도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도 마음껏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양육과정이다.

### (4) 일대일 지도자(10주)

은혜한인교회 일대일 양육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성경공부가 아닌 관계 형성에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체험을 나누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대일 양육을 바로 섬기며 인도할 수 있도록 일대일 양육 지도자

를 양성하기 위한 양육과정이 일대일 지도자이다.

#### (5) 중보기도 세미나(10주)

중보기도는 성도의 중요한 특권이자 의무이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중보기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며, 주변 사람들과 다양한 선교지를 위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양육과정이다. 중보기도 세미나 후에는 주 중에 팀별로 모여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를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

#### (6) 은혜선교학교(8주)

은혜선교학교는 은혜한인교회의 선교 비전과 정책을 위시하여 세계 선교현황과 은혜한인교회 선교현황과 권역별(유럽권, 구소련권, 북미권, 중남미권, 아프리카권, 아시아권) 선교현황 등에 관해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양육과정이다. 은혜선교학교를 통해 성도들은 세계 선교와 은혜한인교회 선교의 구체적 비전과 선교 방향에 관해 알게 되고 함께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다. 은혜선교학교 강사로는 담임목사와 선교부 목사, 그리고 6명의 권역별 선교 담당 장로가 섬긴다.

### 제 3 절 은혜한인교회 선교

선교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따른 인간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때 그리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이해할 때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생명을 갖게 하는 사랑의 실천이 동반된다. 이를 위해 선교하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선교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제로 나누어 주며, 낮아져서 섬기는 종이 되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야 한다. 따라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최상의 삶이다. 이를 위해 선교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

랑하라!"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선교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에게 걸맞은 믿음을 가지고 선교에 임해야 한다(히 11:6). 또한, 선교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 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발을 떼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선교의 현장을 보게 된다.

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은혜 국제 선교회) 선교사역의 모체가 되는 은혜한인교회의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고, 교회와 선교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함에 있다는 목회철학 및 선교철학 위에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혜한인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선교 우선 정책을 펼치며 전체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비로 사용했다. GMI 총재인 김광신 목사는 "상급 받는 교인이 되게 한다."는 목양관, "최상의 성공적 목회자가 된다"는 목회자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선교한다"는 선교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닮아 가는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교회관, 그리고 "선교는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교회 성장관을 목회 철학으로 삼아 사역했다.

김광신 목사의 선교 철학은 다음의 7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선교의 주인의식'이다.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우리를 돕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교사 중심주의'이다. 선교지에서는 선교사가 최고 사령관(결정권자)이고 본 교회는 2군 사령부(후원교회)일 뿐이다. 세 번째는 '선교사 전담지원주의'이다. 파송 교회는 선교사의 사역비를 전담해야 한다. 네 번째는 '선교사 자율주의'이다. 파송교회는 선교사에게 정기적인 사역보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후원교회 무한책임 역할론'이다. 선교 사역의 진흥을 위해 본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여섯 번째는 '선교사 및 선교지 우선주의'이다. 본 교회나 단기 선교팀은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방향으로 한다. 끝으로 '선교지 귀속주의'이다. 선교지에서 사들인 부동산은 20년 후 현지인 단체에 무상으로 이양한다.<sup>89)</sup>

GMI의 21세기 선교전략은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라는 표어 아래 다민족 선교 및 소수민족 선교, 차세대 선교(Younger Generation Mission) 및 디아스포라(Diaspora) 선교, 평신도 전문인 자비량 선교 및 협력선교, 그리고 미전도

89) 30년사 편찬위원회, *성령의 능력 받아 땅끝까지* (서울: 두산동아, 2012), 208.

종족 선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1. 선교 현황

은혜한인교회는 개척하여 2016년 1월까지 60개국에 292명(자체파송 79%, 협력 파송 21%)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지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예정이다. 은혜한인교회는 6개 권역(구소련,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및 포르투갈어 권)으로 나눠 선교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 가. 구소련 권역

1990년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같은 해 7월에 은혜한인교회는 미리 준비한 24명의 선교합창단을 중심으로 구소련 다섯 곳(사할린, 하바롭스크, 타쉬켄트, 알마타, 모스크바)을 순회하는 전도 집회를 하였다.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 10,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으며 그 다섯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특히 은혜한인교회는 1993년과 1994년에 미국에서 전세기를 빌려 물자를 수송해 가면서 현지인 성도가 대략 11,000여 명(봉사자 1,000여 명)이 참석한 대형집회를 통해 구소련 선교가 더욱 확장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은혜한인교회는 구소련 지역을 전략적 선교 요충지로 삼아 꾸준히 선교하고 있다. 현재 구소련 지역에는 9개국에 33명의 파송선교사와 10명의 협력선교사가 교회 개척 사역, 신학교 사역, 성경학교 사역, 크리스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역, 기술 직업학교 사역, 고아원 사역, 중독자 회복 사역 및 각종 구제 사역 등을 하고 있다.

#### 나. 아시아 권역

아시아 선교는 1986년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시아 선교는 TD(Tres Dias)와 신학교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교지에서 선포되는 기본 메시지는 그레이스 인카운터(Grace Encounter)의 강의 내용이다. 은혜한인교회는 보다 체계적인 아시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김광신 원로목사가 총재로 섬기고 있는 미국 GMI의 국제본부를 한국에도 두었으며, 한국 경기도 연천군에 GMI 선교사 훈련원을 세워 운영 중이다. GMI 선교사 훈련원은 소수의 지원자를 모아 한국

에서 4개월간 훈련한 후 바로 미국으로 와서 3개월 동안 다양한 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이론과 현장 실습에 균형을 이루는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GMI 선교사 훈련원의 졸업자 수는 133명이다. 아시아 선교 권역에는 19개국에 115명의 파송선교사와 29명의 협력선교사가 은혜한인교회 성도들과 협력하여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 다. 아프리카 권역

아프리카 권역 교회의 현실은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많이 부족하기에 토속신앙과의 혼합주의로 인한 이단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한인교회는 아프리카 권역에 속한 기존 목회자의 신학 재교육과 함께 목회자 후보생들에 대한 철저한 신학교육 및 훈련을 아프리카 선교의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아프리카 선교 권역에는 9개국에 20명의 파송선교사와 5명의 협력선교사가 신학교 사역, 교회 개척 사역, 학교 사역, 의료 사역, 구제 사역 등을 감당하고 있다.

#### 라. 중남미 권역

중남미 권역은 아프리카 권역과 흡사하기에 목회자의 재교육과 함께 토속종교와의 혼합주의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남미 은혜신학교는 영적 성장(말씀 체험과 성령 체험), 전문적인 기술의 습득, 일반 학문의 지식 습득, 신앙과 인격 함양,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삶에 초점을 맞춰 사역하고 있다. 현재 중남미 선교 권역에는 13개국에 25명의 파송선교사와 8명의 협력선교사가 활동 중이다.

#### 마. 유럽 권역

은혜한인교회 성도 중 제1호 선교사인 김태원 선교사 부부가 1988년 4월에 독일에서 ETD(Europe Tres Dias)를 시작하면서 유럽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매년 2회씩 시행되는 ETD는 64회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동안 3,000여 명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유럽 권역에는 8개국에 20명의 파송선교사가 회교도, 힌두교도, 불교도 등의 신앙을 지닌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다시 일가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 바. 북미주 권역

은혜한인교회는 김광신 목사의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역을 그의 제자인 한기홍 목사가 이어받아 아름다운 동역으로 본보기가 되는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특히 30여만 명이 되는 인디언 원주민 565개 부족 중 가장 큰 부족인 나바호(Navajo) 원주민 선교를 위해 태권도 사역, 청소년 TD, VBS 사역 등을 펼치고 있다. 북미주 권역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18명의 파송선교사와 9명의 협력선교사가 다양한 사역으로 활동 중이다.

### 2. 선교 전략

은혜한인교회 선교의 동기와 과정과 목적은 오직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전략을 획일화시키지 않고 성령의 인도 하심을 따라 선교지마다 진단과 처방을 다르게 내리고 그에 따른 선교 전략을 세우고 있다. 선교지에서 필요한 재정은 오직 '기도'로 해결해야 함을 알고 있는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은혜한인교회의 김광신 목사는 선교를 시작하면서 실행한 '사랑의 불꽃'(Tres Dias) 사역, 신학교 사역, 교회개척 사역을 통해 전략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으며 한기홍 목사는 이 세 가지 전략과 함께 미전도 종족 사역을 추가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 가. 사랑의 불꽃

사랑의 불꽃(Tres Dias)은 김광신 목사가 1986년에 뉴욕 Long Island Tres Dias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아 같은 해에 은혜한인교회 자체 프로그램으로 수정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랑의 불꽃(Tres Dias) 사역은 은혜한인교회 선교지인 60개국 선교 현장에서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3박 4일로 진행되는 사랑의 불꽃(Tres Dias) 사역은 선교지의 기경을 일구는 데 탁월한 영성프로그램으로 선교지에 사는 현지 목회자 및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케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첫발을 내딛게 한다.

사랑의 불꽃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섬길 경험 있는 봉사자(team member)가 많이 있어야 한다. 은혜한인교회는 180기가 넘는 GTD(Grace Tres Dias)를 통해 사랑의 불꽃(Tres Dias)을 섬길 수 있는 봉사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선교지에서 사랑의 불꽃(Tres Dias)이 열릴 때마다 그곳에 사랑의 불꽃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에 봉사자로 많이 헌신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봉사자로 참여한 은혜한인교회 성도들은 직접 선교에 참여하게 되면서 선교의 DNA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그리고 새로 개척된 선교지에서 몇 년간 사랑의 불꽃이 진행된다면 사랑의 불꽃을 경험한 현지 사람들이 강사 및 봉사자가 되어 자국민을 섬기게 됨으로써 현지화 된 사랑의 불꽃이 진행되는 선순환의 사역이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나. 신학교 사역

사랑의 불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현지인 중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들을 목회자로 양성할 수 있는 신학교를 세우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교지에 세워진 신학교를 통해 현지인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도와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복음이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널리 전파되고 있다.

2014년까지 공식적으로 세워진 신학교는 중국에 세 곳(대학, 대학원, 4년제 및 3년제), 대만에 한 곳(대만 목회자 재교육, 2년제), 러시아에 한 곳(대학 및 대학원, 5년제), 우크라이나에 한 곳(대학 및 대학원, 5년제), 아프리카에 한 곳(목회자 재교육, 2년제), 아르헨티나에 한 곳(목회자 재교육, 2년제), 칠레에 한 곳(목회자 재교육, 2년제), 페루에 한 곳(목회자 재교육 및 신학생 양성, 2년제), 이스라엘에 한 곳, 미국에 한 곳(GMU: 대학, 대학원 및 선교학 박사), 그리고 한국에 한 곳(GMI 선교사 훈련원)이 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인도와 터키에 신학교가 세워질 예정이며 그 외에도 많은 선교지에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 다. 선교지 교회 개척 사역

은혜한인교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세운 신학교를 통해 양성된 현지인 목회자

들을 통한 교회개척과 복음전파 사역은 은혜한인교회의 중요한 선교전략이다. 구소련의 경우 1992년에 시작된 모스크바 은혜신학교를 통하여 23기생까지 남자 1,321명, 여자 931명, 모두 2,252명이 모스크바 은혜신학교를 졸업했다. 이들은 구소련 전 지역에 1,800여 개의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했으며, 그중 1,000여 개의 교회가 현재까지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은혜한인교회는 60개국에 세워진 수천 개의 현지인 교회를 통해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 라. 미전도 종족 사역

1982년 3월에 시카고에서 열린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한 회의에서 "미전도 종족(UPG: Unreaches People Group)은 자신의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자생적 공동체가 없는 종족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복음주의 선교운동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2% 미만이어서 스스로 전도할 능력이 없어 외부로부터 선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칭하고 있다.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정의와 통계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FTT(Finishing the Task) 선교팀은 2014년에 미전도 종족을 6,400~6,500여 종족 15억~20억 명으로 보며, 그중에 약 3,300 종족 6억 명을 미개척 종족(UUPG: Unengaged Unreaches People Group)으로 본다.<sup>90)</sup>

21세기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선교가 미전도 종족 선교이다. 이를 위해 은혜한인교회는 선교하기에 열악한 환경을 지닌 인구 12억 5천만 명의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단기 선교팀'을 보내 선교의 장을 열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며, 2015년에는 '사랑의 불꽃'을 시작했고, 2016년에는 '신학교'를 세울 예정이다. 이처럼 은혜한인교회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 전략적 지역에 7,000개 교회를 세워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3. 선교훈련의 실제

선교는 영혼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거나 잘못된 복음을 들은 다른 지역, 타 문화권 사람들을 향해 영혼구원과 함께 제자화 및 증인화를

90) "FTT에 관한 주요 질의 응답," 2016년 3월 인용. Online: <http://fttkorea.com>.

지향하는 다양한 사역(복음증거, 교육, 의료, 구제, 봉사 등)을 통틀어 선교라 말할 수 있다. 은혜한인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교훈련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삶, 즉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다.<sup>91)</sup>

#### 가. 선교훈련의 교육과정

은혜한인교회는 다양한 양육과정을 실행함으로써 성도들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한다. 특히 성도들은 'GTD'를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인 사랑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선교지에서의 '사랑의 불꽃' 사역의 봉사자로 섬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성도들은 '전도폭발'을 통해 미전도 종족을 비롯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게 된다. 또한, '율법과 복음'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한 삶을 성도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은혜한인교회는 1년에 2회 8주간의 전문적인 선교훈련 과정을 통해 은혜한인교회의 선교정신과 방향을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취시키고 있다. 8번의 선교훈련 강의는 강의마다 은혜한인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선교의 전략 및 전술이 담겨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선교훈련의 8번 강의를 통해 성도들은 선교지를 가슴에 품게 되고, 그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게 되며, 단기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열정을 갖게 된다.

##### (1) 세계 선교 현황과 GMI 선교 현황 및 선교 전략

선교 훈련의 첫 강의에서 다루는 '세계선교 현황과 GMI선교 현황 및 선교 전략'은 신학적 관점에서 선교에 대한 해석과 선교 용어에 대한 설명 및 선교 역사에 관해 살피는 과정으로 선교에 대한 개론을 다룬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과거는 물론 현재,

91) Jessie Penn-Lewis, *십자가의 도 (The Centrality of the Cross)*, 이현수 역 (서울: 두란노, 1998), 64-67.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세계선교 현황을 듣게 됨으로써 선교에 관심을 두게 된다. 또한,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선교 전략, GMI 선교학, 미전도 종족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타종교권(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단) 선교 전략, 인도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강의를 통해 선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된다.

첫 강의는 GMI 선교가 어떻게 형성되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은혜한인교회의 선교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알려 줌으로써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선교에 대한 바른 눈을 뜨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 (2) 북한 사역

1990년대에 시작된 북한 선교는 북한이 가뭄으로 굶주리던 1996년에 북한 현지 내에 세운 국수 공장을 통해 30여만 명의 목숨을 살렸고, 1997년에는 700여 명을 수용하는 고아원을 세웠으며, 병원 의료 선교 활동과 함께 다양한 물질적 후원을 진행해 왔다. 그 후 중국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과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탈북하여 한국에서 사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혜동산'(새터민 Tres Dias)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 사생 결단을 하고 사선을 넘는 과정을 통해 고향을 등지고 한국에 왔지만,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구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탈북자들을 위해 미국에서 사는 60~70명의 은혜한인교회 성도들이 봉사자가 되어 한국으로 가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탈북자들로 구성된 황금종교회에 연결해줌으로써 단회적인 선교가 아닌 지속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은혜한인교회는 탈북자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하나님께서 통일의 은혜를 주시는 때에 복음으로 무장된 탈북자들이 복음을 들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도록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 강의를 통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북한 선교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성도들이 북한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하며 은혜동산에 참여하여 탈북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 (3) 구소련 선교와 청지기 선교회의 역할

구소련 선교의 핵심은 신학교(모스크바 은혜 신학교) 사역으로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공인된 학사 및 석사 과정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지닌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여 현지인 목회자들이 러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영제학교(김나제 그레이스 영제사립 고등학교) 사역으로는 전략적으로 사회 계각층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양성하며, 졸업생 가운데서 크리스천 러시아 대통령을 배출한다는 장기적인 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독교 문화가 러시아에 정착되게 하는 선교의 미래의 꿈나무를 심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병원시설 운영, 기술학교 및 농업학교 운영, Tres Dias, Encounter, 교역자 세미나, 기도학교, 그리고 각종 집회를 통해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

1986년도에 자영업자 및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선교후원을 목적으로 발족한 실업인 선교회가 모체가 되어 1990년도에 구소련 지역의 선교를 전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초교파, 범 교회적으로 '청지기 선교회'가 설립되었다. 현재는 은혜한인교회를 비롯한 6개 교회, 약 1,200여 명의 회원이 청지기 선교회에 동참하여 섬기고 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한 예수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청지기 선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모여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청지기 선교회 현황 및 청지기 선교회의 역할, 청지기 선교회 운영 및 참여 방법에 대해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성도가 청지기 선교회에 가입하여 자신의 형편에 맞게 물심양면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되며 구소련 지역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가슴에 품게 된다.

### (4) 북미주 및 중남미 선교와 원주민 단기선교

네 번째 강의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북미주 및 중남미 선교를 소개하여 성도들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소개되는 사역으로는 북미주 나바호 원주민을 위한 Tres Dias와 VBS 사역이 있다. 그리고 중남미 선교로는 교회 건축, KPM(전문성을 지닌 비즈니스 리더 양육을 위한 CEO School), 길갈 미션(중독자 사역), 물한그릇 선교, 캠퍼스(학원), 양로원, 노숙, 그리고 교도소 사역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선교는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함께하는 협력사역(Unity in Diversity)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 체류 신분의 문제로 해외선교를 가지 못하거나 선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미국 나바호 원주민 선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혜한인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동참하게 함으로써 세계 선교 마무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또한, 나바호 원주민 단기 선교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5) 아프리카 및 중동 선교

아프리카는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토속신앙을 받아들여 혼합주의로 인해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보다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을 추구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자체가 희석되고 있다. 이런 지역을 바르게 복음화시키기 위해 기존 목회자들에 대한 신학 재교육과 함께 신학생에 대한 철저한 말씀훈련과 신학교육을 위해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환경을 위해 지역개발을 통한 간접 선교도 병행하고 있다.

중동 선교는 복음을 오픈하여 증거 할 수 없기에 전문 직업을 가진 선교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지인들과 친해짐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지 소식을 통해 성도들은 이곳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큰 복음을 깨닫게 되어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중동지역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

#### (6) 아시아, 유럽, 포어권 선교 및 의료선교

많은 성도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한국 또는 미국에서 살고 있기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7개국(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만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종교 자유를 인정하며 동시에 종교에 대한 핍박을 겪하는 국가는 10개국(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몽골)이 있다. 반면에 종교에 대한 심한 핍박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로서 공산주의 국가로는 북한, 베트남, 라오스, 부탄이 있으며, 이슬람 국가로는 중동지역과 중앙아시아 7개국이다.

유럽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4.2%에 불과하기에 유럽도 선교지가 된다. 유럽은 세속화된 문화와 가파른 교회 감소 현상과 함께 이슬람의 전략적인 유럽 진출로 인해 유럽의 기독교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당히 아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유럽을 통해 반면 선생(反面 先生)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유럽이 이미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다종교화가 되었으며 동시에 유럽은 경제 및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유럽 선교는 매우 중요하다.

포르투갈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9개국(브라질, 포르투갈, 가보베르데,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동티모르, 마카오, 앙골라, 상투에프린시페)이다. 강의를 통해 이들 나라의 지리적 위치, 종족 구성, 종교 등을 알려 줌으로써 성도들이 포르투갈어권 선교에 관심을 끌게 한다. 특히 현재 포르투갈어권 선교로 진행 중인 AFA사역(현지 목회자 영성 회복을 위한 Tres Dias, 구체적인 목회 방법인 G12, Grace Encounter), 선교센터 운영(페스카 도르 공동체; 사역의 나눔, 정보 교환, 교제와 휴식, 재충전의 현장), 신학교 사역(체계적인 신학교육, 교회 개척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의료선교는 은혜한인교회 의료선교팀을 중심으로 하여 선교지를 순회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특별히 선교사가 파송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교지를 우선순위로 삼아 의료선교를 함으로써 파송을 받은 선교사에게 지역적 입지를 세워주고 있다. 그리고 의료선교를 할 때는 의료팀은 물론 미용, 풍선, 인형극 등 다양한 선교활동도 함께 함으로써 더욱 폭넓은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

#### (7) GMI와 GKC 선교 방향과 비전, 수료식

선교훈련 마지막 강의 시간은 담임목사가 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은혜 국제 선교회)와 GKC(Grace Korean Church: 은혜 한인 교회) 선교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간단한 수료식을 거행한다. GMI와 GKC 선교의 특징은 선교하는 데 있어 확일성에 두지 않고 선교지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선교 전략을 수립했다는 데

있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회와의 마찰을 피해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신학교를 세워 양질의 현지 목회자를 배출하여 교회를 개척하게 했다. 반면에 대부분의 현지 목회자가 중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신학교를 세워 운영 중이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박해가 있는 중국에서는 전문 직업 및 가정교회를 통해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

이러한 선교의 뿌리에는 현지에서 진행되는 3박 4일의 '사랑의 불꽃'(Tres Dias)을 통해 현지인들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복음 사역의 문이 열리면서 시작된다. 이때 이러한 사역이 열리기 위해서는 훈련받은 많은 성도가 선교지에 가서 사랑의 불꽃 프로그램 봉사자로 참여하는 헌신적인 섬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동안 GTD를 통해 훈련받은 은혜한인교회 성도들과 협력했기에 이처럼 많은 선교가 열릴 수 있었다. 따라서 GMI와 GKC 선교는 성도들의 헌신과 땀의 수고 위에 세워졌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이다. 8주간의 선교훈련을 통해 선교에 눈을 뜨게 된 성도들에게 이러한 정신을 가슴에 심어주고 신앙생활 할 것을 권하는 동시에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하며 수료식을 하게 된다.

#### 나. 선교훈련의 시간 운영

은혜한인교회 선교훈련은 8주 코스로 매년 봄, 가을에 진행되며 참석자 수는 30~50여 명 정도가 된다. 선교훈련 모임은 평일 저녁 7시 30분에 모임, 성도들이 다음 날 출근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저녁 10시 전에 끝난다.

##### (1) 아이스 브레이크

선교훈련 훈련생들로부터 받은 등록비(교재비와 식비 포함)로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 있는 음식을 선교부에서 준비한다. 그리고 선교훈련 모임은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부터 8시까지 식사를 하게 되는 데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원형 테이블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테이블별로 조를 이루게 되며 조별로 조장을 세워 조장이 주 중에 조원들에게 연락하게 함으로써 훈련생들의 참석률을 높이고 있다. 특히 조별로 관심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조장이 그 훈련생에게 더욱 관심을 두고 섬기게

하여 함께 수료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2) 찬양

선교부에서 찬양을 준비하여 8시부터 10분간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한다. 이때 훈련생들의 마음이 영혼구원과 선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곡하여 부르는 것이 좋다. 또한 드러지는 찬양은 단순히 강의 앞에 놓인 준비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찬양을 통해 훈련생들의 생각과 중심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며, 다윗이 부른 찬양처럼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영적 찬양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찬양 인도자는 많은 기도로 준비해야 하며 선교부 팀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 (3) 기도

찬양 후에는 찬양인도자의 인도를 받아 모임을 위해 통성기도를 한다. 이때 그날 배울 선교지 권역에 관한 주요 기도제목을 가지고 마치 선교지인 온 것처럼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한다. 또한, 그 선교지 권역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함께 하는데, 이러한 기도 훈련은 선교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기에 훈련생들에게 기도에 대한 훈련을 시킨다. 통성기도 후에는 훈련생이 돌아가며 마무리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훈련생에게 대표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게 한다.

## (4) 강의

은혜한인교회 선교훈련 강의는 총 8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강의는 선교담당 목사가 강의하며, 2~7 강의는 선교지 권역을 맡아 섬기는 장로가 강의하고, 마지막 강의는 담임목사가 직접 강의한다. 이처럼 선교훈련 강의를 평신도 리더가 하는 것은 선교훈련의 강의를 단순한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지 권역별로 행하여지고 있는 선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 주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여섯 명의 선교지 권역 담당 장로들은 평균 20여 년 넘게 그 선교지 권역을 섬긴 평신도 리더로서 자신이 맡아 섬기는 선교지의 상황을 일반 목회자보다도 정확히 잘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강의 중에 평신도로서 선교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해 줌

으로써 같은 평신도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가 되며 성도들이 그 선교지에 가게 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강의는 8시 15분부터 9시 45분까지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다. 강의마다 강사가 준비한 파워포인트(PPT)로 강의가 진행되는데, 각 선교지 사진 및 영상을 함께 보여 준다. 선교지 사진 및 영상은 훈련생들에게 선교지에 대해 생생한 시청각 정보를 주는 동시에 선교지에 대해 간접경험을 하게 해 줌으로써 훈련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강의에 핵심 내용은 가능하면 강사가 경험한 선교지 에피소드를 통해 말해 주는 것이 훈련생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기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생들이 후에 단기선교를 갔을 때 발생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된다. 특히 온종일 직장 일로 인해 피곤한 저녁 시간에 딱딱한 선교이론보다 선교지에 대한 경험담이 훈련생들에게 오래 기억되고 실제 선교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 (5) 중보기도 및 광고

강사가 강의를 마무리할 때는 강의에서 말한 선교지의 핵심 내용, 선교지에 필요한 상황, 그리고 선교사들이 요청한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10여 분간 중보기도를 훈련생들과 함께한다. 앞서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선교지를 가슴으로 품은 자로서 간절한 중보기도가 절로 나오게 된다. 이때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도 훈련이므로 훈련생 모두 선교지 방향을 향해 일어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게 한다. '선교가 곧 기도라는 것'을 훈련생들의 가슴에 새겨 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보기도 마무리 기도는 선교담당 목회자가 한 후 광고하고 그날 선교훈련을 마친다.

#### 다. 단기선교

은혜한인교회는 매년 20~30회의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기에 훈련생들이 자신의 환경에 따라 단기선교를 갈 기회가 많다. 선교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단기선교에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은혜한인교회 단기선교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의 선교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사랑의 불꽃(Tres Dias) 단기선교로 성도

들이 봉사자(Team Member)로 동참하여 조직적인 3박 4일의 사랑의 불꽃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둘째는 복음증거 단기선교 사역으로 미전도 종족이 사는 지역에 가서 조별로 4~6명씩 흩어져 현지 목회자와 함께 다니며 4~5일 동안 현지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제시하는 사역이다.

#### (1) 단기선교의 목적

은혜한인교회는 단기선교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믿음의 성장을 갖게 하며 선교지를 가슴에 품게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 전쟁이 있는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동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선교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역경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성장을 갖게 된다. 또한, 현지 선교사와 함께 동역함으로써 선교사들의 마음을 알게 되며 선교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러한 단기선교를 통해 성도들은 선교에 관심을 두게 되고 선교에 눈을 뜨게 되어 지속적인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

#### (2) 단기선교의 출발 전 준비사항

단기선교는 영적 전쟁이기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중보기도 후원자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단기선교를 가기 전에 4~8번의 팀 모임을 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이때 선교지 원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간단한 언어 훈련이 필요하고, 선교지 환경(지형, 기후, 문화, 종교)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특히 여권 및 비자 확인 및 준비는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매 단기선교마다 단기선교의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인지하고 그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의 불꽃 단기선교일 경우에는 자신이 맡아 섬길 부서(강의, 총무, 테이블 리더, 주방, 장식, 셋업, 간식, 팔랑카 등) 별로 미리 물품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증거 단기선교일 경우에는 조를 구성하여 역할 분담(총무, 회계, 서기, 영상 등)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하며, 모두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각자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선교 리더는 선교 기간에 있을 일들을 예측하여 미리 경건의 시간(QT)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 (3) 단기선교 현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선교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단기선교 팀원들이 그동안 선교를 위해 준비한 모든 계획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이다. 선교 현장은 시시때때로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맞추어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선교는 현지 선교사에게 힘을 실어주어 선교팀이 떠난 뒤에도 선교사를 통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만일 선교팀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열매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면 선교 현장에서 잦은 마찰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단기 선교팀이 준비한 사역을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와 조율하지 않고 자신들이 준비한 사역을 다 펼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선교 현장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현지 선교사의 인도를 받아 사역해야 하고 현지인들에게 선교사를 높여 주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단기선교팀 리더는 아무리 사역이 바쁘더라도 선교지에서 매일 아침에 갖는 경건의 시간(QT)을 통해 팀원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 사역을 시작하게 하며, 사역을 마치고 난 후 저녁에는 아침에 주어진 QT 말씀에 비추어 하루 사역을 평가하고 기도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 시간을 통해 선교팀 리더는 팀원들 개개인이 그날 하루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영적,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점검하고 목양을 해야 한다. 또한, 저녁 모임을 통해 낮에 사역하면서 겪었던 팀원들 간에 생긴 불편함을 해결하는 동시에 다음 날 해야 할 사역에 대해 서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단기선교에서 돌아와서의 후속 조치

단기선교를 다녀와서는 영혼육간의 적당한 휴식 및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단기선교를 마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선교팀 전체 멤버모임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모임에서 단기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며 동시에 단기선교에 대한 평가회를 통해 선교하면서 좋았던 점과 부족했던 점을 기록으로 남긴다. 이 기록은 그 지역에 단기선교를 갈 다음 선교팀에게 매우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 단기선교팀 리더의 주요 임무는 단기선교를 하면서 팀원들 간에 마음이 불편한 부분을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또한, 단기선교팀 리더는 팀원들이 단기선교를 통

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선교 현장에서 잘한 부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여 가르친다. 동시에 팀원들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실망 및 좌절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녀온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단기선교를 통해 얻어지는 유익함

단기선교를 다녀온 성도들은 낙후된 선교지의 삶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사는 현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며, 복음을 직접 전하는 증인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성도들 간에 협력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며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 4. 선교의 결과

은혜한인교회는 성도들의 눈빛이 살아 있는 교회이다. 은혜한인교회 성도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다양한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교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고 단기선교를 다녀오게 되면서 선교사의 심정으로 선교를 대하게 된다. 또한, 세계 열방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각 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어 성도들이 선교사와의 만남을 자주 갖게 된다. 이처럼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선교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가 하면 불완전한 사람이 하는 선교인지라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 가. 순기능

은혜한인교회는 선교하는 가운데 많은 긍정적인 열매를 얻게 되었으며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 성장하고 있다.

### (1) 선교지와 지속적인 유대관계

은혜한인교회 28개 그룹은 각각 선교지 및 선교사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단기선교를 가게 될 경우 보통 그룹 위주로 간다. 선교사들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해당하는 그룹에서 매달 한 번 드리는 그룹 합동예배에 참석하여 선교보고 및 간증을 하며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이런 유대관계가 있기에 선교지에서 만나도 서로 서먹서먹하지 않고 바로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그룹 선교부장은 매주 주일 오전 9시 20분에서 10시 45분까지 들려지는 2부 예배시간에 선교 회의실에 모여 교회를 방문한 선교사에게서 선교 보고 및 간증을 듣고, 교회에서 준비한 각 선교지 소식을 받아 그룹에 전한다. 이와 같은 조직적인 선교 체계로 인해 성도들은 선교사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은혜한인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은 한 가족처럼 서로에 대한 영적 및 정신적인 교류의 친밀함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성도가 지니고 있는 선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 (2) 선교 및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해외 단기선교 사랑의 불꽃(Tres Dias)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사랑의 불꽃 봉사자(Team Member)로 섬기면서 현지 선교사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때 선교사의 심정을 알게 되며 도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단기선교를 하며 현지에 사는 영혼들을 위해 가슴으로 하는 중보기도를 경험하게 되고,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섬기는 가운데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게 된다. 또한, '백문 불여일견'(百聞 不如一見)이라는 속담처럼 선교에 대해 여러 번 듣는 것보다 직접 선교 현장을 찾아가 보게 되면 선교 사역에 대한 중요성과 영혼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좋은 여행지를 다녀온 추억은 평생 기억이 나듯이 은혜한인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복음을 들고 가서 밟은 선교 현장을 평생 가슴에 품게 된다. 그리고 그 선교지를 위해 시간 날 때마다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 이처럼 단기선교를 통해 은혜한인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선교의 열정은 곧 영혼 구원에 대한 강할 열정으로 표출되어 은혜교회에서만 매년 100여 명이 침례(세례)를 받고 있다.

### (3) 신앙생활 및 삶에 대한 동기 부여

단기선교를 다녀온 은혜한인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쓰임을 받았다는 긍지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바른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리고 선교를 가는 데 필요한 재정과 시간을 얻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왔던 성도들의 단순한 삶이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인해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은혜한인교회 성도 중 직장을 다니는 많은 성도가 직장 휴가를 내어 단기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 왔을 때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극복할 힘을 지니게 된다. 또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선교와 연결되는 것임을 성도들이 알기에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선교를 통해 은혜한인교회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시간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 (4) 교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소멸 됨

대부분의 단기선교는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된다. 그룹 식구들이 단기선교를 가게 되면 그룹 차원에서 교회에 모여 선교기간 동안 단기선교팀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 이처럼 선교를 중심으로 그룹이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 그리고 그룹 안에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성도들이 선교지에 가서 함께 고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것을 종종 본다. 특히 교회 차원에서 볼 때 죄악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다 보니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해도 성도들의 관심과 열정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사역에 가 있기에 교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는 퍼져나가지 못한다.

### 나. 역기능

은혜한인교회가 선교에 집중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 반면에 몇 가지 연약한 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 (1) 성도 사이에 우열이 생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성도와 다녀오지 못한 성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선교에 초석이 되는 GTD를 다녀온 사람들과 다녀오지 않은 성도 사이에도 함께할 수 없는 벽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이런 차이로 인해 단기선교 및 GTD에 참석하지 않았던 성도가 참석하게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성도의 삶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신분적, 경제적,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어 단기선교나 GTD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은 은혜한인교회의 많은 사역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온 성도들 대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다는 자부심에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기선교를 다녀온 성도와 GTD에 참석한 성도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것은 '겸손한 심령'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 (2) 보이는 사역에 치중하게 됨

은혜한인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 선교 이외의 봉사 활동에는 약한 측면이 있다. 단기선교 또는 GTD 렉터(평신도 책임자)로 섬기려면 선교지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수만 불의 비용을 평신도 렉터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많은 성도가 렉터가 되길 원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이름도 빛도 없이 돌보는 섬김에는 늘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은혜한인교회가 보이는 선교에 치중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섬기며 칭송받는 사역에는 많은 봉사자가 몰려들지만, 칭증이 없는 섬김 활동에는 봉사자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진정한 상급은 이 땅에서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임을 더욱 알게 해야 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후 4:18).

### (3)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열심

단기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은 봉사자들의 평상시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평상시 생활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성도들도 선교지에서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부류의 성도들에게 선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갉아먹는 처방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생활로 인한 빛진 심정을 선교에 헌신한 것으로 대처하려는 생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교에 헌신한다는 공로의식으로 인해 개인의 삶 속에서 자신이 인격적으로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자 하는 열망이 약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을 살도록 적극 권면해야 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 (4) 말씀 사역이 상대적으로 약해짐

선교는 기도가 주축이 되는 사역이다. 은혜한인교회는 선교에 좀 더 많은 힘을 쏟기 위해 대부분 말씀보다는 기도와 능력에 탁월한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는 하나 성도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씨름하게 하는 말씀 사역은 기도 사역에 비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은혜한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서는 강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로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사역을 통해 생활 속에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한 말씀 사역이 필요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17).

#### 제 4 절 요약 및 결론

선교는 끊임없이 상대에게 '남은 것을 주느냐, 필요한 것을 주느냐'라는 갈등의 선택 갈림길에 서 있다.<sup>92)</sup> 그래서 선교는 기도이며, 전쟁이고, 순교이다. 은혜한인교회는 제자도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92) David Platt, *래디컬 (Radical)*,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1), 149-189.

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 개척된 교회이다. 그래서 은혜한인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힘에 겹도록 선교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복음증거 사역을 목적 삼아 온 교회 시스템이 작동되어 왔다. 그리고 은혜한인교회는 선교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결신 과정, 제자훈련 과정, 사역훈련 과정을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는 선교적인 삶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있다.

은혜한인교회의 선교의 특징은 선교지를 6개 권역으로 나누는 동시에, 확실적인 한 가지 전략으로 선교하지 않고 선교지 권역과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선교 전략을 수립하여 선교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과 땀의 수고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불꽃을 통해 선교의 교두보를 만들어, 그곳에 현지인을 위한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여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여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선교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은혜한인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은혜한인교회가 선교에 매진함으로써 선교지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고, 성도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삶의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해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면에 선교에 집중된 사역으로 인해 성도 간의 우열이 생겼으며, 보이는 사역에 치중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기도 사역에 비해 말씀 사역이 약해졌다. 동시에 선교에는 열정인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 힘쓰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은혜한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서는 강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로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한인교회는 선교사역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도를 잘 감당하고 있다.

## 제 5 장

### 제자훈련과 함께하는 선교사역

5장에서는 현재 제자훈련을 하는 LA사랑의교회에 제자도의 또 다른 핵심축인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교에 열심을 품고 있는 은혜한인교회에 제자도의 또 다른 핵심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가기 위한 ‘제자훈련’ 보완 방안을 찾고자 한다.

#### 제 1 절 LA사랑의교회의 선교훈련 보완 방안

제자훈련을 통해 LA사랑의교회 성도들은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의 변화와 인격이 성숙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른 교회관과 사도관을 가지고 평신도 동역자로서 목회자와 함께 사역함으로써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를 가져 왔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하는 LA사랑의교회는 제자도의 또 하나의 핵심축인 ‘제자 세우는 사역’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기에 제자훈련을 받은 자로서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선교훈련’이 필요하다. 선교훈련을 위한 양육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자훈련을 하는 LA사랑의교회에 적합한 선교훈련으로 이미 은혜한인교회에서 검증된 ‘전도폭발’과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전도폭발

선교훈련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 만든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 시스템과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복음 증거자 스스로가 먼저 복음 앞에 서서 자신을 냉정하게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1~5단계로 이루어진 전도폭발 교재를 통해 진행되는 전

도폭발은 이미 세계 211개 나라, 100,000여 교회에서 전도폭발 사역을 통해 평신도를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있다.<sup>93)</sup> 전도폭발은 4가지 중요한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성도는 다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목회자는 평신도를 무장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현장실습이 전도폭발 훈련의 핵심이기에 전도폭발 훈련을 하는 동안 꼭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로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자 한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리를 가지고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전도폭발을 통해 훈련생들은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해 알기 쉬운 예화 및 핵심 성구들로 논리 정연하게 이루어진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동시에 배운 내용을 암송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생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회고하며 감사하게 되고, 복음의 진리 위에 자신의 삶을 적용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됨과 동시에 말씀에 근거하여 그 구원론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을 생활 가운데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전도폭발 훈련생들의 삶에 ‘영혼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게 되어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게 한다. 이처럼 검증된 전도폭발 교제와 전도폭발 훈련 시스템을 LA사랑의교회가 도입하여 실행하게 된다면 영혼 구원이라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네 가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 가. 구원에 대한 확신

교회의 직분자 가운데서도 ‘복음’을 피상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단지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 봉사활동에 열심을 냄으로써 직분자에게 합당한 외향적인 요소를 갖추므로써 교회의 직분(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을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과 구원에 대한 진지한 대면이 없었던 성도들에게 전도폭발은 복음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낱낱이 점검하는 시간이 된다. 이 과정에서 구원에 대해

93) James D. Kennedy, *전도폭발 (Evangelism Explosion)*, 김만풍 역 (개정 4 판; MD;국제전도폭발 미주한인본부, 2010), 16.

잘못 알고 있었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상황들을 말씀을 근거하여 배우게 된다.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전할 수 없기에 복음을 증거 하는 자에게 있어 '구원에 대한 확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 전도와 선교의 첫 발걸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나. 친교

지금 이 시대에 있어 영혼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는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전도폭발을 통해 복음을 증거 할 대상자의 언행에 어떻게 경청하며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배움으로써 전도 대상자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소홀히 여겨 왔던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발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훈련자와 훈련생이 복음 안에서 친밀감을 느끼게 되며 훈련을 마친 후에도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된다. 전도폭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토대는 훈련자와 훈련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하나가 되게 만든다.

#### 다. 전도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우리 교회가 좋으니 교회에 한 번 와 보라고 권유할 따름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때 발생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귀중함과 위대함을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도폭발은 체계적으로 복음을 암송하게 함으로써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논리와 균형을 갖게 한다. 그리고 전도폭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10번의 현장실습을 통해 복음을 직접 증거하는 가운데 오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복음증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신이 단순히 외워서 전한 복음을 전도 대상자가 진지하게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경험할 때, 전도폭발 훈련생은 복음에 대한 위대함을 전인격

적으로 알게 된다.

#### 라. 건강한 성장

전도폭발을 통해 성도들 스스로 구원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되며, 그 기쁜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됨으로써 교회가 생동감을 얻게 되며 교회의 양적인 성장도 함께 가져오게 된다. 또한, 전도폭발 훈련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훈련자로서 새로운 훈련생과 함께 복음을 증거 하는 현장실습을 계속해서 실행함으로써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된다.<sup>94)</sup>

### 2. 그레이스 인카운터

은혜한인교회의 그레이스 인카운터(Grace Encounter)는 니키 검블 (Nicky Gumbel)이 만든 알파를 미국 남가주 실정에 적합하게 변형해 28개의 각 그룹에서 8주 코스로 실행되고 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는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불신자 및 초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으로 초청하는 동시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준비한 사람들이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주 중에 한 번 교회 또는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만나 식사를 같이하며, 짧은 강의를 듣고, 테이블별로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한 번의 주말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헌신이 없는 신학’(가슴 없는 머리)과 ‘비신학적인 헌신’(머리 없는 가슴)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sup>95)</sup>

#### 가. 8주 저녁 모임

전도는 전 인격을 포함하는 과정이기에 그레이스 인카운터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머리와 의지에 복음을 전하게 된다.<sup>96)</sup> 마음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레이

94) Kennedy, *전도폭발*, 17-21.

95) John R.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Leicester, England: IVP, 1992), 127.

96) Nicky Gumbel, *알파 시작하기 (Telling Others)*, 알파코리아 역 (서울: 서로사랑, 2006),

스 인카운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고 매번 모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청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여 대접한다. 이때 전도대상자들이 최고의 사랑과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느낄 만큼 최선을 다해 테이블 셋업, 자리 배치, 팔랑카(선물) 등을 준비한다.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는 팀원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조크 시간을 가져 서로가 가볍게 웃는 가운데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한다. 그리고 머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두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함께 반복하여 부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성령, 실제적인 삶에 대해 평신도가 강의안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다. 그레이스 인카운터는 주 중 저녁에 모여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한 다음 날 직장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저녁 9시 30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저녁 10시 안에 마쳐야 한다.

#### 나. 시간 운영

보통 그레이스 인카운터는 주 중 저녁에 8번 모이게 된다. 첫째 주 환영식과 마지막 주 졸업식에는 성대한 연회(banquet)를 준비하여 환영하고 축하해 준다. 주 중 저녁 그레이스 인카운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7:30~7:40 환영 및 친교
- 7:40~8:10 저녁 식사
- 8:10~8:15 조크 타임
- 8:15~8:25 찬양
- 8:25~8:50 강의
- 8:50~9:20 그룹 토의
- 9:20~9:30 광고 및 찬양, 폐회기도

#### 다. 테이블 운영

그레이스 인카운터의 핵심 중 하나는 소그룹 토의에 있다. 팀원 중에서 한 명의 소그룹 인도자와 두 명의 봉사자가 한 팀이 되어 한 테이블을 섬기게 된다. 테이블

봉사자의 첫 번째 의무는 중보기도이다. 테이블 봉사자는 초청된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이름을 불러주며,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며,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남, 여 테이블을 구분하는 것이 좋고 진솔한 대화 속에 그룹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 테이블에 4~5명의 초청된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때 가능하면 원형 테이블로 준비를 한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테이블별로 강의 내용에 대해 1~2가지 토의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소그룹 인도자는 복음을 전하되 받아들일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초청된 사람 스스로가 성령님 안에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도록 그룹 토의를 열린 방식으로 인도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1:28~29). 특히 테이블 안에 있는 초청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사고를 배척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소그룹 인도자는 진리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기보다는 그 의견을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아도 그 사람의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 주고 존중해 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소그룹 토의의 목적은 강의를 통해 전해진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초청된 자들의 영적이며 지적 수준을 파악하며, 참된 교제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소그룹 토의 시간이 초청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듣고 끝나서는 안 되며, 초청된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스스로 배우며 결단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테이블 리더는 미리 토의 내용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함께 운영의 묘미를 가지고 테이블 모임을 인도해야 한다. 특히 초청된 사람들이 테이블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한다. 즉, 토론에서 이기고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만일 소그룹 토의 중 무안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소그룹 리더는 주 중에 꼭 연락하여 위로 및 격려해 주는 목회적 돌봄을 해야 한다.

올바른 소그룹 토의 인도를 위해서 소그룹 리더는 미리 준비된 소그룹 토의안을 읽어 가며 진행을 하되, 가르치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대화하도록 이끌며, 인도자가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토의가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며,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답으로 유도하기보다는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하게 하며, 오답이라도 의견을 존중해 주고, 위압적인 질문을 삼가며, 사람들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하여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인도자가 잘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잘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동시에 목회자에게 물어보아 다음 모임에 답변해 줄 것을 약속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 라. 강의 주제

이미 준비된 강의안을 평신도 리더가 완전히 숙지하여 자신이 강의하는 것처럼 강의할 수 있도록 강의 전에 목회자에게 미리 점검을 받고 조언을 듣는다. 그리고 주말 수양회는 강의 내용상 6주째 강의 후에 하는 것이 좋으며, 주말 수양회 때에는 소그룹 토의를 하지 않는다. 강의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불신자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터득시키며, 불신자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사용하여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 다음과 같이 매주 복음을 제시한다.

첫째 주 강의 제목은 "기독교 신앙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로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참다운 행복을 얻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기독교 신앙이 필요함을 강의하게 된다.

둘째 주 강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주안점을 두고 강의한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에 대해 알려 준다.

셋째 주에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라는 제목으로 인간 모두가 죄인 됨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강의하게 된다.

넷째 주의 강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과 그것을 깨닫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 세례 및 성령 충만에 대해 알려준다.

다섯째 주에는 "성경은 왜 읽어야 하며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함을 설명해 주며,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여섯째 주 강의를 "기도는 왜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정의와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법 및 기도의 응답 등에 관해 설명해 준다.

여섯째 주 강의를 있는 토요일(일요일)에 주말 수양회를 갖게 된다.<sup>97)</sup> 이때 목회자가 세 번의 강의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된다. 첫 번째 강의는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성령님께서 심령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증거 해 주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며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시며 능력을 주심에 대해 강의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나?"라는 주제로 믿음의 내용 네 가지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됨을 설명한다. 그 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 기도 후에는 마지막 강의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악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인격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일곱째 주에는 "전도는 왜 하며 어떻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전도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며, 진리를 말한 청지기로서 전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며,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여덟째 주 강의를 "나의 남은 삶을 통하여 무엇을 구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이 땅에서 믿음의 작품을 만들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된다. 강의 후에는 그레이스 인카운터 수료식을 한다.

#### 마. 운영조직

그레이스 인카운터에 초청된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이 열려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땀과 헌신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디렉터, 운영자, 행정관, 강사, 봉사자, 회계, 물품 구매자, 장식 및 셋업 팀, 식사팀, 간식팀, 안내팀, 교재 담당, 찬양팀, 아이들 돌봄이(baby-sitting), 사진 담당, 팔랑카 담당, 조크담당을 맡아 섬길 봉사자들이 필요하다.<sup>98)</sup> 이때 분야별로 기질과 성품에 적

97) 부록1 참조

98) 부록2 참조

합한 봉사자들을 정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3. 선교사역을 위한 제언

LA사랑의교회도 여름에 단기선교를 가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단기선교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LA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양육프로그램이 있지만 새일꾼반,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필수 양육과목으로 선정하여 성도들에게 3개의 필수 양육과목 훈련을 적극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LA사랑의교회가 선교사역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선교훈련을 단순히 양육과정 중 하나로 도입하기보다는 온 성도들이 제자훈련처럼 배워야 할 필수 양육코스로 진행할 때 큰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다.

#### 가. 일반적 제언

제자훈련을 하는 LA사랑의교회는 제자도의 핵심이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선교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통해 전도와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도 및 선교 프로그램 하나를 도입한다고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교회의 체질이 선교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을 마친 성도들에게 ‘전도폭발’을 이수하게 한 후 사역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역훈련을 마침과 동시에 ‘그리스 인카운터’를 필수 양육코스로 넣어 복음 증거자로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폭발’을 통해 온 성도들이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며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음을 암기하게 된다. 이는 개인적인 전도는 물론 선교지에 가서도 현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에 매우 중요하다.

다른 측면으로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쑥스럽게 여기는 많은 성도를 위해 팀 안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그리스 인카운터 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 그리스 인카운터는 일반 성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사역을 분담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또한, 교회에 새로 등록된 성도들에게도 그레이스 인카운터 대상자로 참석하게 하여 기존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며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됨으로써 교회에 더 잘 정착하게 된다. 더 나아가 교회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성도들이 경험한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선교 현장에 맞게 3박 4일 프로그램으로 응용하여 실시한다면 단기 선교를 가는 성도들은 물론 현지 선교사가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실행함으로써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돌아간 후에도 현지 선교사를 통해 그레이스 인카운터에 초청된 현지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제와 복음 전파가 계속 진행된다.

#### 나. 실질적 제언

LA사랑의교회가 선교적 측면에서 전도폭발과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필수양육과정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임목사의 확고한 목회 철학이 요구된다. 교회에 새로운 양육과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도입될 때 오는 여러 가지 저항을 담임목사가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기존 신자들이 또 하나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심적 부담감과 양육 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반발할 때, 담임목사가 자신의 신념을 성경적이며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며 이끌어야 한다. 특히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양육 과정을 교회에 선포하고 전 교인을 대상으로 전도폭발과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실행하기보다는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새로운 양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들이 먼저 전도폭발과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홍보 대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전도폭발 접목

전도폭발을 LA사랑의교회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담임목사가 먼저 국제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전도폭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공유했다면 담임목사와 교회 중직자들이 다른 교회 전도폭발 프로그램에 훈련생으로 직접 참석하여 전도폭발에 대한 전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것을 권

장한다. 만일 교회 여건상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국제전도폭발국에 요청하여 교회 중직자들을 LA사랑의교회 전도폭발 0기로서 훈련할 훈련자를 요청한다. 이를 통해 중직자들은 전도폭발을 경험하면서 얻은 다양한 유익한 점을 몸소 체험하는 가운데 LA사랑의교회에 전도폭발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데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후원자가 된다. 그 후 LA사랑의교회 순장(구역장)을 중심으로 전도폭발 1기생들을 모집하여 전도폭발 0기생과 함께 훈련생과 훈련자 관계로 교회 차원에서 전도폭발을 시작한다.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전도폭발 1기 훈련은 정식대로 하되 전도폭발을 통해 복음 증거를 통한 영혼 구원의 기쁨을 훈련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중보기도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훈련생과 훈련자들이 전도폭발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10회 현장실습에 필요한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것이다. 전도폭발 1기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1~6회까지 필요한 전도 대상자는 LA사랑의교회에 새로 등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 후 훈련생들이 직접 찾아 복음을 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교회 중직자들이 이미 훈련생으로 경험했지만 복음을 암송하는 데 미흡한 부분은 훈련자로 전도폭발 1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채워지며, 횟수가 거듭될수록 진정한 전도폭발의 의미와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된다. 그 후 전도폭발 2기부터는 전체 교회에 광고를 하여 훈련생을 모집해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LA사랑의교회 전도폭발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것이라 본다.

## (2) 그레이스 인카운터 접목

LA사랑의교회에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실질적으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와 부목사들이 먼저 8주간 진행되는 은혜한인교회 그레이스 인카운터에 대상자로 참석하여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 그레이스 인카운터에 담임목사와 부목사들이 봉사자로, 교회 중직자들은 대상자로 참석하여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주는 쉼과 분위기 전체를 경험한다. 그리고 LA사랑의교회에서 순장들을 중심으로 그레이스 인카운터 1기 대상자를 모집하고 담임목사가 강사로 섬기며 부목사들과 교회 중직자들은 봉사자가 되어 진행한다. 그레이스 인카운터 2기부터는 교회에 전체 광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교회 중직자들과 1기생들이 봉사자로 섬긴다. 주말 수양회는 담임목사가 인도하며 8주간 강의는 교회 리더들이 맡아 섬긴다.

그레이스 인카운터 운영조직표대로 봉사자 각자가 맡은 임무를 인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담임목사와 운영자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봉사자들을 훈련해야 한다. 훈련은 강하게 하지만 실제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실수도 미소로 용납해 주되 매주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끝나면 봉사자 평가 모임을 하고 그 날에 있었던 부족한 점들과 서로 협력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인신 공격이 되지 않도록 담임목사가 인도하며, 격려와 예리한 통찰력으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봉사자 평가 모임에서 나온 안건들은 행정관이 기록하여 다음 주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시작되기 전에 보완한다.

## 제 2 절 은혜한인교회의 제자훈련 보완 방안

은혜한인교회는 개척과 동시에 선교에 온 힘을 기울여 사역함으로써 성도들이 영혼 구원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으며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다양한 선교지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통해 성도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동기를 부여받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있다. 하지만 선교하는 은혜한인교회에는 제자도의 또 다른 핵심 바퀴인 성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측면’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기에 선교하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은혜한인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방대한 양육 과정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은혜한인교회의 전통적인 양육을 이어가면서 제자훈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바른 판단과 결단이 요구되어 진다.

### 1. 양육과정 재편성

은혜한인교회는 선교사역에 초점을 두고 결신 과정 1개 과목과 제자훈련 과정 7개 과목, 사역훈련 과정 6개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제자훈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과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제자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 가. 결신 과정

‘그레이스 인카운터’(Grace Encounter)를 통해 불신자와 교회의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룹과 교회에 잘 정착하게 인도한다. 그리고 ‘일대일 양육’을 통해 말씀 안에서 훈련자와 훈련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터를 다진다.

#### 나. 제자훈련 과정

은혜한인교회 제자훈련 과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현재 7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의 은혜한인교회 제자훈련 과정에 '제자훈련'을 포함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부담될 뿐 '제자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희석된다.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 은혜한인교회가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제자훈련을 온전히 접목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에너지와 교회의 훈련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자훈련이 양육 과정에 잘 정착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현재 7개 과목으로 구성된 제자훈련 과정 중 가장 필요한 3과목(Grace Freedom, Grace Tres Dias, 율법과 복음)만을 남기고, 거기에 ‘제자훈련’을 포함해 제자훈련 과정을 4개의 과목으로 축소해서 철저히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은사발견 세미나'와 '성경적 재정교실'은 기타양육 과정에 포함해 가르치며, '신약 개론'과 '구약 개론'은 통합하여 '신구약 개론'으로 사역훈련 과정에 포함한다. 말씀 안에서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자훈련을 통해 은혜한인교회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제자도를 이루기 위해 제자훈련 과정을 축소 개편하여 훈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 다. 사역훈련 과정

은혜한인교회 사역훈련 과정은 6개 과목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은혜한인교회에 접목할 ‘제자훈련’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기존 6개 과목을 '신구약 개론', '부목자 세미나', '전도 폭발', '선교학교'로 축소 개편하여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

존에 있었던 '일대일 지도자', '지도자 자질론', '중보기도 세미나'는 기타양육 과정으로 편성해 양육시킨다. 그러면 복음 증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전도폭발'과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 정신을 품게 하는 '선교학교' 등을 통해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

## 2. 제자훈련의 효능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만든 세 권(제자훈련의 터다지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작은 예수가 되라)으로 구성된 제자훈련 교제와 제자훈련 시스템을 은혜한인교회 양육 시스템에 접목해 사용한다면 은혜한인교회가 그동안 선교 사역에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연약했던 3가지 측면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열심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과 씨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한 말씀에 기초한 생활 숙제를 하면서 성도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오게 되어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 또한, 교회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다양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선교지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연약함에서 벗어나 일반 생활 속에서도 언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것이다.

### 나. 말씀 사역의 활성화

은혜한인교회는 선교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기도 사역은 활성화되었으나 말씀 사역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을 배우며 묵상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한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 다. 보이지 않는 사역의 활성화

은혜한인교회는 보이는 선교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사역에서의 봉사자들의 섬김이 약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 안에서 생활의 변화와 인격이 성숙한 성도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과 봉사도 풍성해질 것이다. 특히 매 순간 자신과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좀 더 마음을 쏟게 될 것이다.

### 3. 제자훈련을 위한 실질적 제언

선교하고 있는 은혜한인교회가 ‘제자훈련’을 도입하여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를 더욱 이루기 위해 지금의 양육과정 위에 또 다른 하나의 양육과정으로써 ‘제자훈련’을 포함한다면 오히려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뿐 제자훈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은혜한인교회를 그동안 지탱해 주었던 양육 과정을 모두 내려놓고 제자훈련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혜한인교회의 핵심 사역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여 실행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의 체질을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자훈련은 매우 집중을 필요로 하는 훈련이기에 훈련 내용과 기간으로 볼 때, 제자훈련 과정 중에 있는 다른 양육 과정(Grace Freedom, Grace Tres Dias, 율법과 복음)을 다 받은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

#### 가. 일반적 제언

성도양육 과정을 제자도에 근거하여 새롭게 개편을 했어도 성도들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만 주는 양육과정이 된다. 따라서 성도들이 신앙 단계에 맞게 구성된 양육과정(결신 과정, 제자훈련 과정, 사역훈련 과정)을 교회 직분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 중 하나로 삼는다면 성도들에게 새로운 양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 예컨대 서리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신 과정'(그레이스 인카운터, 일대일 양육)을 받아야 하고,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 과정'(Grace Freedom, Grace Tres Dias, 율법과 복음, 제자훈련)을 수료해야 하며, 그리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훈련 과정'(신구약 개론, 부목자 세미나, 전도폭발, 선교학교)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은혜한인교회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바른 제자도를 깨닫게 됨으로써 앨런 록스버그(Alan J. Roxburgh)와 스콧 보렌(M. Scott Boren)이 주장한 "선교적으로 존재함(Being missional)은 더 좋은 방식의 교회 활동(Doing church)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에 관한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sup>99)</sup> 즉 선교적 교회는 선교 행위(Doing mission)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Being mission)이다. 따라서 성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지원함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성도 자신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이며 교회 자체가 선교이기에 성도가 서 있는 현장이 곧 선교지가 됨을 깨닫고 자신의 언행을 통해 하루하루의 생활이 복음을 증거 하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

#### 나. 실질적 제언

은혜한인교회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온전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임목사와 부목사들이 CAL 세미나(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의를 들어야 한다. 목회자들이 CAL 세미나를 통해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동시에 제자훈련의 구체적인 구성과 방법을 경험한다. 그리고 담임목사와 부목사들은 제자훈련 체험학교를 참석하여 제자훈련을 은혜한인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교회의 토양 분석과 비전 공유와 양육체계 구축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며 은혜한인교회의 청사진을 그려 본다.<sup>100)</sup>

CAL 세미나를 이수한 후 담임목사가 훈련자가 되고 부목사들이 훈련생이 되어 제자훈련 전 과정을 먼저 경험한다. 그 후 은혜한인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대상으로 훈련생을 모집하고 부목사들이 훈련자가 되어 제자훈련을 시키되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은혜한인교회 양육과정은 보통 8주

99) Alan J. Roxburgh and M. Scott Boren, *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9), 72.

100) 국제 9기 제자훈련 체험학교, 국제제자훈련원, 2007. 1-4.

과정으로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제자훈련은 32주 과정으로 귀납법적 방법으로 진행되기에 훈련자들이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 꼭 귀납법적 진행 요령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100여 명이 넘는 은혜한인교회 장로들을 훈련할 때는 나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자훈련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 제 3 절 요약 및 결론

LA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역에 집중해 왔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은 많은 성도가 말씀 안에서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LA사랑의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측면'에서의 제자도의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측면'에서의 제자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도폭발'과 '그레이스 인카운터'와 같은 복음을 증거 하는 프로그램을 필수훈련에 접목해 선교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전도폭발'과 '그레이스 인카운터' 프로그램만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교 프로그램은 개 교회 문화와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접목하는 것이 좋다. 단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평신도 리더들과 상의해 마찰 없이 도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은혜한인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즉 복음으로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역에 비해 은혜한인교회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훈련'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자훈련'을 통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편만한 양육과정을 재편성하여 과목수를 줄이고 '제자훈련'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여 국제제자 훈련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제자훈련을 강행하는 것이 좋다. 이때 평신도 리더부터 제자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양육과정에 잘 정착하게 인도한다. 그리고 교회가 사역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기보다는 성도의 눈높이 맞춤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01)</sup>

## 제 6 장

### 결론

#### 제 1 절 연구 요약 및 한계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 기복주의와 교회성장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자도’를 이루기 위한 양육과 훈련을 받기보다 개 교회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교회 프로그램들을 통해 훈련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주님의 제자가 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삼고 주님의 제자도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제자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한 측면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삶이다.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면서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 서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반면에 선교사역을 하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본인은 주님을 닮아가는데 소홀히 한다면 그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

101) 이상수, *건강한 교회성장 이제는 시스템이다* (서울: 말씀사, 2005), 378-382.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명령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자도’에 근거한 21세기적 상황에 걸맞은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에 대한 깊은 고찰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마 4:23).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의 핵심은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과 동시에 그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제자들을 온전히 세워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딤후 2:2).

필자가 섬긴 LA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첫 번째 제자도의 측면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쏟는 교회이다. LA사랑의교회가 개척과 동시에 제자훈련에 매진하였기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며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었고, 바른 구원관과 사도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성도들이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평신도 동역자가 되었으며, 훈련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의 많은 사역에 참여하여 교회 사역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또한, 필자가 섬긴 은혜한인교회는 ‘선교사역’을 통해 제자도의 두 번째 측면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이다. 은혜한인교회는 개척과 동시에 물심양면으로 선교에 온 정성을 기울였기에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도에 열정을 품게 된 일반성도 중에는 선교사로 헌신하여 오대양과 육대주에 있는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 그 결과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선교지에 간 선교사와의 유대관계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은혜한인교회의 성도들은 매년 다양한 단기선교를 통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어 적극적으로 전도 및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LA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에서, 그리고 은혜한인교회는 선교사역에서 나름대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 교회가 상대적으로 이루지 못한 제자도의 다른 측면을 보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도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 5장에서 LA사랑의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제자훈련’에 ‘선교사역’을 보완하기 위해 ‘전도폭발’과 ‘그리스 인카운터’(Grace Encounter)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언을 하였다. 그리고 ‘선교사역’을 잘 실행하고 있

는 은혜한인교회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훈련'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실행하고 있는 15가지의 양육과정을 축소 재편성하는 동시에 '제자훈련'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이며 실질적인 제언을 하였다.

교회가 제자훈련 또는 선교사역 중 어느 한 측면만이라도 좋은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은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본 논문은 현재 제자훈련 또는 선교사역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미국 이민교회를 중심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제자도의 다른 측면을 보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그래서 아직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을 실행하지 않는 교회에서 본 논문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교회마다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측면이 강하거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마다 상대적으로 보면 '제자훈련'(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사역)에 더 집중을 하거나, '선교사역'(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에 더 초점을 두고 사역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현재 '제자훈련'(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는 제자도의 다른 측면인 '선교사역'(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선교사역'(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교회는 제자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제자훈련'(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사역)을 어떻게 지금의 사역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본 논문에 의미를 둔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교회가 접목할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전도폭발, 그레이스 인카운터, 제자훈련은 개 교회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필자가 미국에서 섬긴 두 교회는 대형교회이기에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이 함께 하는 제자도를 본 논문에서 구상해 보았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는 제자훈련이나 선교사역 중에 하나만이라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온전한 제자도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즉, 아직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선교사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요구된다.

## 제 2 절 연구 결론 및 제언

온전한 제자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뜻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는 성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라는 핵심적인 두 개의 수레바퀴가 존재한다. 그리고 온전한 제자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 나라는 ‘현존’임과 동시에 ‘약속’이기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sup>102)</sup>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려놓음이 필요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시해야 한다.<sup>103)</sup>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제자도에 걸맞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훈련'(제자가 되는 훈련)과 '선교사역'(제자로 삼는 사역)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교회의 양육과 훈련은 각 담임목회자의 성향과 교회가 소속된 교파나 교회의 문화에 큰 영향력을 받는다. 이로 인해 교회의 양육과 훈련이 지식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교회,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측면에 무게를 두는 교회, 그리고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교회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양육과 훈련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온전히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교회의 양육과 훈련은 지식적인 측면과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 교회 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환경문제, 정치문제, 건강, 재정, 부부관계, 자녀관계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과 훈련을 하기 위해 '제자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그들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측면에서의 사역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근거한 제자훈련과 선교

102) Georgia Harkness, *Understanding the Kingdom of God* (Nashville, TN: Abingdon, 1974), 115.

103) 이용규, *더 내려놓음* (서울: 규장, 2008), 225-247.

사역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즉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안에서 영혼육 간에 균형 있는 성숙을 위해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이 필요하다.

LA사랑의교회와 은혜한인교회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제자훈련과 선교사역 중 상대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100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역을 30이라 하자. 이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교회의 연약한 사역을 회복하여(30을 100으로 만들어) 교회의 현재 사역 '100+30=130'을 '100+100=200'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LA사랑의교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선교사역'을 도입하여 실행하거나, 은혜한인교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자훈련'을 접목한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선교사역'과 '제자훈련'이 30에서 100이 되어 '100+100=200', 200의 효과를 본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교회가 현재 연약한 다른 사역을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사역이 현재보다 더 약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의 사역이 '100+30=130'이라면 제자도의 다른 측면을 교회 사역에 보완하여 실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실질적 현상은 '80+40=120(-10)' 또는 '80+50=130(0)' 또는 '80+60=140(+10)'이 될 것이다.

교회가 지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교회 성장 원리에 핵심 장애요인이 된다는 '최소치 요소의 법칙'<sup>104)</sup>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제자도의 다른 측면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교회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제자도의 한 측면이 100에서 80으로 조금 연약해진다고 해도 제자도의 다른 연약한 측면이 30에서 40~60으로 보완된다면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이 함께 하는 균형 잡힌 사역이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만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제자가 되는 것'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된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제자도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제자도의 두 측면 중 현재 부족한 제자도의 부분을 먼저 인식하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제자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목회자

104)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외역 (서울: NCD, 2001), 49-53.

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하며,<sup>105)</sup>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성도의 정체성'(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만일 교회가 성도를 단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봉사자로만 여긴다면 교회는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개인적 성장'보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헌신하는 '개인적 봉사'에만 초점을 두게 되어 성도가 주님의 제자도를 온전히 이룰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은 '교회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는 바쁜 일정과 행사보다도 먼저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훈련해야 한다. 즉, 교회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선한 열매'(마 7:15~20), '의의 열매'(롬 6:22; 빌 1:11), '성령의 열매'(갈 5:22~23)를 맺어 가며 살아가도록 '제자훈련'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교회는 성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데 쓰임을 받도록 교회가 '선교사역'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

교회가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을 하다 보면 인간의 조직과 행정과 경험에 치중하여 제자도를 이루고자 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간혹 보이게 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도를 이루는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따라서 온전한 제자도를 이루기 위해 교회가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에 열정을 쏟을 때, 먼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님과 함께 진행하며,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사역을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한인교회의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에 성공 여부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평신도 리더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사역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온 교회 성도가 함께 소중한 것을 먼저 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sup>106)</sup>

105) 김성구,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서울: 샘터사, 2002), 87.

106) Stephen R. Covey,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First Things First)*, 김경섭 역 (서울: 김영사, 1997), 307-321.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을 해야 한다.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모더니즘(modernism) 시대에서 교회는 과학적 이성 만능사상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복음과 제자도를 지켜왔다. 그 후의 포스터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에서 교회는 반이성적 사고와 종교 다원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성교회들의 전통문화에 안주하지 않고 교회의 전통문화에 대한 보완으로 창의적인 실험을 하는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교회는 각 시대에 주어진 도전과 문화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제자도를 지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을 기초로 제자도의 관점에서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의 상호 보완 방안을 더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 먼저 21세기 교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머징 교회'(emerging church)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21세기 기독교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에 대한 연구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제자훈련을 하는 선교적 교회'(the missional church with discipleship training)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

스티브 잡스(Steven Paul Jobs)는 2005년 스탠포드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세상을 향해 첫발을 떼는 졸업생들에게 "끝없이 갈망하라! 우직하게 나아가라!"(Stay hungry! Stay foolish!)고 도전을 주었다.<sup>107)</sup> 스티브 잡스가 졸업생들에게 명문대를 졸업한 학위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진보할 것을 권면한 측면은 교회에도 해당한다고 본다. 많은 교회가 이루지 못한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을 LA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 측면에서 은혜한인교회는 선교사역 측면에서 나름대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하지만 두 교회가 현 상황 속에 안주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와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제자도'를 온전히 이루길 원하신다(마 28:18~20; 엡 4:13~15; 빌 3:17). 이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107) "Steve Jobs, 2005 Stanford Commencement Address." 2016년 5월 인용. Online: <https://www.youtube.com/watch?v=UF8uR6Z6KLC>

제자도를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교회 상황에 안주하려는 마음 자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 변화해 나아가야 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제자도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엡 4:13~16).

진정한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은 교회 안에 있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을 통해 복음의 능력, 즉 십자가의 능력과 감격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마르바 던(Marva J. Dawn)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살아 있는 송영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 라로 대답한다.<sup>108)</sup>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각자의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즉, 곧 하루 24시간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의미한다.<sup>109)</sup> 단순히 자신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여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sup>110)</sup>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생각하는 필자는 본 논문을 바탕으로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보고,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이 실제로 함께 하는 교회를 꿈꾸며 실행하고자 한다.

108) Eugene H. Peterson and Marva J. Dawn, *꺾이기 목회자는 가라 (The Unnecessary Pastor)*,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0), 72-99.

109) 유기성, *예수를 바라보자* (서울: 규장, 2015), 119-122.

110) 유기성,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서울: 규장, 2014), 190-193.

부록 1

Grace Encounter 주말수양회

	업무 내역	봉사자	비고
1	총 책임자		수양회 봉사 총책임
2	장소안내(안내표)		약도(프린트물)
3	접 수		
4	강의실 준비&정리		
5	식당 준비&정리		2:30pm 이후 저녁식사&디저트
6	간식 준비 (물&커피)		2:30pm 이후
7	기도방석&티슈		방석
8	Baby-Sitter		
9	음향기기 Set-up		찬양팀
10	찬양/울동팀		찬양팀

**일정표**

시간	내용	비고
2:40 - 3:15	등록 및 친교	CD음악
3:15 - 3:35	찬양	
3:35 - 4:35	강의(7&8강: 성령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	
4:35 - 5:05	개인기도(남:#213/ 여:#214) & 팀멤버 기도(#203/204)	이름표(벽) & 방석
5:05 - 6:00	저녁식사 & 디저트	
6:00 - 6:20	찬양	
6:20 - 7:20	강의(9강: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7:20 - 7:30	휴식	간식
7:30 - 8:40	성령 충만 받기 위한 기도	
8:40 - 8:50	휴식	간식
8:50 - 9:30	강의(10&11강: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악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9:30 -10:00	간증 & Closing	

## 부록 2

## Grace Encounter 운영조직표

## 제 기

	운영 조직	담당 업무	참고	담당자
1	Director	Grace Encounter의 프로그램을 진행		
2	운영자	Grace Encounter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괄 지휘, 지원 및 진행		
3	행정관	Grace Encounter국에 등록, 진행상황 보고 및 행정적인 일		
4	강 사	강의 및 소그룹 토의 인도	테이블 별 1명	
5	봉사자	테이블에서 봉사	테이블 별 2명	
6	회 계	Grace Encounter 운영을 위한 경비 관리		
7	물품 구매자	Grace Encounter에 필요한 물품 구입		
8	Deco, Set-up 팀	테이블 데코레이션, 및 set up		
9	Dinner 팀	매 주 식사 메뉴 선정 및 음식준비 (주별로 식사 담당을 정함)		
10	간식팀	Coffee, 보리차, 과일, 캔디 등		
11	안내팀	환영 및 접수, 이름표 관리		
12	교재 담당	강사용 강의안과 소그룹 토의 교재 준비		
13	찬양팀	찬양 인도 및 악보, OHP 준비		
14	주말 수양회 교역자	강의 및 안수(다른 그룹 교역자 초정 가능)		
15	Baby -Sitting	새 가족의 아이들을 돌봄		
16	사진 담당	Grace Encounter 진행 상황을 자료로 남김		
17	팔랑카 담당	팔랑카 선정 및 공급	교회에서 공급 되는 CD 준비	
18	음향&영상 담당	강의시 PP섬김(GMI 선교 Video)		
19	Game 담당	분위기 조성을 위한 Game		

## 참고 문헌

### 1. 국내 서적

- 김광수. *마가 마태 누가의 예수이야기*.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 김성구.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서울: 샘터사, 2002.
- 김세운.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1.
- \_\_\_\_\_. *바울 신학과 새관점*. 재판. 서울: 두란노, 2009.
- \_\_\_\_\_. *복음이란 무엇이가*. 서울: 두란노, 2003.
- \_\_\_\_\_. *칭의와 성화*. 서울: 두란노, 2013.
- 김승호. *복음주의 선교 신학에 대한 이해*. 서울: 예영 B&P, 2008.
- 성종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서울: 솔로몬, 2001.
- 손경덕. "건강한 교회를 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 연구: 충신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유기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서울: 규장, 2015.
- \_\_\_\_\_. *예수를 바라보자*. 서울: 규장, 2015.
- \_\_\_\_\_.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서울: 규장, 2014.
- 이상수. *건강한 교회성장 이제는 시스템이다*. 서울: 말씀사, 2005.
- 이용규. *더 내려놓음*. 서울: 규장, 2008.
- 이재철. *사도행전 속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서울: 홍성사, 2012.
- \_\_\_\_\_. *칭년야,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서울: 홍성사, 2003.
- 이종성. *교회론 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6.
- 이찬수. *보호하심*. 서울: 규장, 2011.
- \_\_\_\_\_. *붙들어 주심*. 서울: 규장, 2013.
- \_\_\_\_\_. *일어나라*. 서울: 규장, 2011.
-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제자원. "누가복음."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vol. 107. 서울: 제자원, 2006.

- 한영제.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2. 서울: 기독교문사, 1984.  
 \_\_\_\_\_.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8. 서울: 기독교문사, 1983.  
 \_\_\_\_\_.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13. 서울: 기독교문사, 1984.  
 홍기영. *선교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0년사 편찬위원회. *성령의 능력 받아 땅 끝까지*. 서울: 두산동아, 2012.  
 CAL. *국제 9기 제자훈련 체험학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7.

## 2. 번역 서적

- Bruce, F. F. *바울신학 (Paul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 정태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Clinton, Robert J. *효과적인 리더십 개발 이렇게 하라 (Leadership Training Models)*. 임경철 역. 서울: 하늘기획, 2009.  
 Covey, Stephen R.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First Things First)*. 김경섭 역. 서울: 김영사, 1997.  
 Eims, Leroy. *제자삼는 사역의 기술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조성동 역. 서울: 네비게이토, 2008.  
 Erickson, Millard J. *교회론 (The Doctrine of Church)*.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Gilbert, Larry. *팀사역 (Team Ministry)*. 채수범 역. 서울: 프리셋트, 2002.  
 Glasser, Arthur F.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Announcing the Kingdom)*. 임윤택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Groome, Thomas H. *생명을 위한 교육 (Educating for Life)*. 김도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1.  
 Gumbel, Nicky. *알파 시작하기 (Telling Others)*. 알파코리아 역. 서울: 서로사랑, 2006.  
 Holladay, William L. *구약성경의 간추린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ased upon the Lexical Work of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손석태

- 이병덕 역. 서울: 솔로몬, 1998.
- Hull, Bill. *온전한 제자도 (The Complete Book of Discipleship)*. 박규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Kennedy, James D. *전도폭발 (Evangelism Explosion)*. 김만풍 역. 개정 4 판. MD: 국제전도폭발 미주한인본부, 2010.
- Longenecker, Richard N. et al. *신약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의 유형 (Patterns of Discipleship in the New Testament)*. 박규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MacDonald, Gordon.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Ordering Your Private World)*. 홍화옥 역. 서울: IVP, 2002.
- Morgan, Campbell G. *하나님 나라의 비유 (The Parables of the Kingdom)*. 오광만 역. 서울: 풍만, 1987.
- Oswald, Sanders J. *영적 제자도 (Spiritual Discipleship)*. 안정임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Penn-Lewis, Jessie. *십자가의 도 (The Centrality of the Cross)*. 이현수 역. 서울: 두란노, 1998.
- Peterson, Eugene H., and Marva J. Dawn.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The Unnecessary Pastor)*.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0.
- Platt, David. *래디컬 (Radical)*.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1.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외 역. 서울: NCD, 2001.
- Stott, John R. W. *사도행전 강해 (The Spirit, The Church and The World)*. 정옥배 역. 서울: IVP, 2002.
- Watson, David. *제자도 (The 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4.
- Webber, Robert E. *예배학 (Worship Old and New)*.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Wilkins, Michael J. *제자도 (Following the Master)*. 이억부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5.

## 3. 외국 서적

Dodd, Charles A.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58.

Fuller, Reginald H. *The Book of the Acts of God*. New York: Doubleday, 1960.

Harkness, Georgia. *Understanding the Kingdom of God*. Nashville, TN: Abingdon, 1974.

Moreau, Scott A.,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2000.

Roxburgh, Alan J. and M. Scott Boren. *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9.

Stott, John R. *The Contemporary Christian*. Leicester, England: IVP, 1992.

## 4. 인터넷

"제 2의 한인타운 부에나 팍, 플러튼." *미주한국일보* (2015년 9월 3일). 2016년 3월 인용. Online: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50903/939344>.

"플러튼 일대 대형교회 속속." *미주한국일보* (2003년 10월 21일). 2016년 3월 인용. Online: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6624>.

"[한인 인구 Census]가주\*뉴욕 인근 주로 뻗는다." *미주중앙일보* (2011년 5월 25일), 2016년 2월 인용. Online: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03461](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03461).

*FTT에 관한 주요 질의응답*. 2016년 3월 인용. Online: <http://fttkorea.com>.

"Steve Jobs' 2005 Stanford Commencement Address." 2016년 5월 인용. Online: <https://www.youtube.com/watch?v=UF8uR6Z6KLc>.

Vita of  
DAVID TAEKUEN LEE

Personal Data:

Date of Birth: May 25, 1971  
 Marital Status: Married to Karen M. Lee  
 Home Address: 571 Cardinal St. Brea, CA 92823  
 Ordained Denomination: Church of the Nazarene  
 Date of Ordained: May 11, 2006

Education:

Doctoral of Minist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lifornia, 2016  
 Master of Divinity: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Louisville, Kentucky, 2004  
 B. S. Mathematics: Catholic University, Bucheon, Korea, 2000  
 B. S. Civil Engineering: Induk College, Seoul, Korea, 1998

Personal Experience:

09/2008 to 06/2015: Assistant Pastor  
Grace Korean Church, Fullerton, CA  
 01/2007 to 08/2008: Assistant Pastor  
LA Sarang Community Church, Los Angeles, CA  
 06/2006 to 12/2006: Assistant Pastor  
Grace Korean Church, Fullerton, CA  
 01/2006 to 05/2006: Assistant Pastor  
Sarang Community Church of S. California, Anaheim  
 03/2000 to 08/2005: Assistant Pastor  
New York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Woodside, NY